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5월 14일)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선명상’ A부터 Z까지 진우스님 직강 나선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회 리더 선명상 아카데미’ 개설

사회 리더 대상으로 강의 진행
6월 25일 첫 강의… 7개 강좌
8월 24~25일 실참 템플스테이
수익금 불사 · 소외계층에 보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기반한 선명상을 통해 국민 정신문명 선도를 강조해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특별한 법석을 연다. 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선명상 보급에 대한 진우 스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강좌로, 직접 법사로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는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직접 지도한다.

첫 강좌가 열리는 6월 25일에는 ‘두려움 없애는 힘을 가진다’를 주제로 법석의 막이 오른다. 7월 2일 ‘나의 미래를 내가 알아내는 과학적 방법’을 주제로 두 번째 강좌가, 7월 9일에는 ‘이것 모르면 빌 게이츠도 괴롭다’를 주제로 세 번째 강좌가 열린다.

△7월 16일 ‘내 마음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좋은 기분을 가진다’ △7월 23일 ‘죽어도 결국 산다’ △8월 16일 ‘지금부터 걱정을 사라지게 한다’ △8월 20일 ‘내 팔자 바꾸는 기가 막힌 방법’ 강좌가 이어진다. 8월 24~25일에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을 만든다’를 주제로 걷기와 화두, 호흡명상 등 실습을 진행, 선명상을 직접 실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초기부터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건강을 돌보는 방법으로 선과 명상을 접목시킨 선명상을 제시해왔다. 특히 선명상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의 정신문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진우 스님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그동안 강조해온 선명상의 방향과 가치를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특히 선명상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넓히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아카데미를 주최하는 조계종 미래본부는 “사회 리더 상당수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과 타인에게 밝힐 수 없는 고독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이 만만치 않다”면서 “진우 스님이 직접 리더들이 겪는 부담과 불확실함에 따른 불안, 괴로움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명상 아카데미는 진우 스님의 ‘재능 보시’로 진행된다. 80% 이상 출석하고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참가자들에 한해 수료증이 수여된다.

신청은 온라인 구글폼(forms.gle/QJt2CnvKmMyKck7d8)에서 가능하다. 수강정원은 선착순 200명이며, 수강료는 50만원이다. 회비로 조성된 수익금 전액은 ‘천년을 세우다’ 불사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창간 30주년 현대불교·(사)다나 공동 후원 캠페인
소외계층청소년 여성위생용품 나눔사업 소녀에게 응원을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342006 (사단법인 다나)
후원문의 | 010-5347-4178 (대표 탄경 스님)



어르신 더위 잊고 건강하세요

님이 어르신의 발을 씻어드리는 모습.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담화 원명 스님)는 6월 10일 단오를 맞아 신중단오재 ‘화기애애(和氣愛愛)’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단오재에서는 80세 이상 신도 11명을 초청해 효의 의미를 담아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시작으로 소금단지 묻기 등이 진행됐다. 사진은 주지 담화 원명 스

글=신중일 기자, 사진제공= 조계사

도심사찰에 ‘서울형 키즈카페’ 도입 추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제1차 미래복지포럼 개최

이용비 부담 줄여 지역민 ‘인기’
서울시 2026년까지 400개 목표
“사찰 내 유휴 공간 적극 활용”
어린이 포교 윤활유 역할 기대

서울 서초구의 한 키즈카페는 2021년 한 교회가 선교문화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서초구에 무상 제공한 공간이다. 올해부터는 서울형 키즈카페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37.56㎡(약 72평) 규모의 1층 공간엔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고 요금은 민간 시설의 1/7수준으로, 지역주민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드나드는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덩달아 교회에도 활기가 돈다.

서울시가 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에 시작된 지 2년.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계 참여가 두드러지며 속속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계에서도 서울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키즈카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불교계도 이를 활용한다면 어린이 포교의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6월 11일 서울노인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과 운영방안’을 주제로 2024년도 제1차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놀이시설 1만400여 곳 가운데 공공 놀이터 비율은 단 7%다. 열악한 접근성과 공공 놀이시설 부족이 서울 육아정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2022년부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와 종교시설, 폐어린이집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사용자의 이용비 부담을 덜고 날씨 등 외부 여건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민간 인증제 46곳 포함, 시립 3곳 구립 26곳 등 75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70여 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400곳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확대를 위해선 장소 선정이 중요한데, 서울시가 관심을 보이는 곳이 사찰 등 종교시설 내 공간이다. 실제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에는 교회 내 서울형 키즈카페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올해 중 성북구에 위치한 교회에 다수의 키즈카페가 문을 열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키즈카페 조성 신청을 받은 결과 23건 중 18곳 중 모두가 교회 등 기독교 시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당시 불교계의 신청은 전무했다. 이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정책의 흐름과 포교 방향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불교계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포럼에서 김성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키즈카페사업팀장은 “사찰 내 유휴 공간을 발굴해 놀이터를 조성하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민간형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그간 불교계 참여가 미비했지만, 사찰에서 가능한 시설 운영 모델이나 희망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 시설 운영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는 앞으로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참여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단순한 정책 참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2024년 하반기

• 4대 공모사업
•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제21회 대원상 공모
접수 기간 : 2024년 9월 2일(월) ~ 10월 4일(금)

제9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4년 6월 24일(월) ~ 7월 19일(금)

제9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4년 7월 1일(월) ~ 7월 26일(금)

제10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3일(금)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 학점은행제 학생 모집
2024년 9월 4일 개강
접수 기간 : 2024년 8월 1일 ~ 9월 4일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 추진과목 포함 강의 진행

(온라인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2024년 9월 11일 개강
접수 기간 : 2024년 8월 1일~ 9월 11일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도록
강의 영상 제공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문의 : 02-719-1855

도의 국사 다례재…“미래천년 열겠다”

조계종, 6월 7일 조계사서 다례
성파 스님 “종조 은혜 보답하자”
진우 스님 “국민 마음평안 화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조 도의 국사 다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모사를 올리고 있다.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시원 도의 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 국사 다례’를 봉행하고 도의 국사가 전한 선풍을 선양했다. 다례에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각 포교신도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정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자광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도의 국사가 남긴 법인을 추모했다. 성파 대종사는 “종조의 정통법인을 사승, 가지영역에 종당을 게양하니 팔백제자들이 종문을 장엄했고 종문에 백화가 난만하고 눈 밝은 선장들이 대대로 배출돼 오늘에 이르렀다”고 상찬하며 “후학들이 종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진전사지를 복원하고 매년 추모다례를 봉행하며 법은을 기리는 조주청다를 올리니 전 종도들은 큰 은혜를 깊이 새겨 그 법을 만고에 유전케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광 스님은 대독을 마친 뒤 “조계사 대웅전 앞 나무가 수백년 동안 저 자리에 있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고 깊기 때문”이라며 “우리 종단도 조사님들의 뿌리를 깊이 선양하고 빛나는 조계종도가 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국사께서는 중원의 육조 대사-마조 선사로 이어지는 법등을 이어받아 해동 땅을 지혜의 등불로 환하게 밝혔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수많은 눈 밝은 선지식들이 시대를 이어가며 대대로 출현토록 했으니 이는 인재불사의 시작”이라며 “역사와 전통, 수행법을 오롯하게 이어오는 조계종은 종조의 종지와 역대조사의 가르침을 통해 사부대중은 물론 전국민의 마음평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큰 의지처로 자리잡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에 이르러 모든 것이 복잡하게 서로 얽히면서 중중무진의 번뇌가 서로 연기작용을 일으키는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 이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이의 화두”라고 강조했다.

선명상 수행법을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일을 종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이는 종조 도의 국사의 뜻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며 동시에 과거천년을 이어받아 미래천년을 열어가는 과업”이라며 “종조께서는 이런 발원을 자비로 섭수, 대업이 원만 성취돼 세계만민에게 회향될 수 있도록 가호해달라”고 말했다.

도의 국사는 통일신라시대 스님으로, 중국의 조사선 전통을 최초로 국내에 들여와 선법을 펼쳤다. 당나라에서 37년간 머물며 수행하다 821(신라 현덕왕 13)년 귀국, 조계선법을 펼치려 했으나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탄식해 설악산 진전사에서 40년간 주석하다가 제자인 억성염거 선사에게 전법하고 입적했다. 국사의 선법은 억성염거 선사를 거쳐 보조체징 선사에게 전해져 시흥했다. 체징은 장흥군 가지산에 보림사를 창건, 신라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 일파를 형성하고 선풍을 널리 진작해 오늘날 조계종의 시원이 됐다. 조계종은 1941년 제정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태고사법’에서 명시한 도의 국사 기일인 음력 5월 2일에 맞춰 매년 다례를 봉행하고 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중신회장 입후보

6월 27일 대의원총회서 선출



조계종 제28대 중앙신도회장 후보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사진〉이 단독 입후보했다.

중앙신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호)는 6월 10일 “제27대 회장 임기가 2024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제28대 회장 선거후보 등록을 6월 7일 마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 후보자격 심사를 통해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의 후보 등록을 최종 확정했다”고 공고했다.

장세철 제9교구본사 동화사 신도회장(고려건설 회장)은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후보자격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정원주 후보는 2014년 BBS 광주불교방송 감사를 역임하고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경제분과 수석부회장, 2024년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부대표로 활동하면서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재적사찰은 제21교구 개천사다.

정 후보는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사)한국청년회의소 부회장, (재)광주NGO 시민재단 부이사장, (재)한국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사)광주국제협력단 상임이사, 김홍빈 대장원정대 단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 도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흥그룹 부회장, ㈜헤럴드미디어 그룹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장, 대우건설 회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제28대 중앙신도회장을 선출하는 제27-5차 대의원총회는 6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치러진다. 김내영 기자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 5기 위촉

한산 스님 등 5명 선발
“재미있는 불교 전하겠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 콘텐츠를 제작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불교크리에이터’가 새롭게 위촉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6월 11일 서울 한국역사불교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불교크리에이터 5기 위촉식을 열고 신규 불교크리에이터들에 위촉장과 활동 지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5기로 선발된 불교크리에이터는 개인 4명, 1개 팀이다. ‘하루에 하나 일주일 명상’으로 일반 대중에 쉽게 명상을 소개하는 한산 스님, 청년포교를 위한 웹툰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마음 수업’의 한정우 씨, 인스타툰 카드뉴스로 법구경 구절을 안내하는 ‘곰과 냥이의 법구경을 통한 현실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의 팀 아나레(박소현·류현석), 53선지식을 토대로 감각적인 일러스트를 기획한 ‘선소하다’의 김백설 씨, 불교 교리를 녹여낸 레트로 스타일 작품을 선보이는 ‘묘한 사후세계’의 박지원 씨다.

전문가와 교무위원이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크리에이터로서 꾸준한 발전가능성이 있거나, 도전적이고 참신한 시도가 돋보이는 기획서를 중심으로 선발한 결과다.

이날 선업 스님은 “이번에 선정된 5기 불교크리에이터는 역량 있는 전문가들로, 불교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많은 이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능력을 맘껏 발휘해 한국불교 발전은 물론 국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 증진에 일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 수업’의 한정우 씨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인스타’ 만화를 그리고 있다. 나 역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불교를 만나 치유했다”며 “비슷한 고민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정각회 신임회장에 이헌승 국회의원

“불교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 22대 신임 회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소임을 맡는다.

4선 중진 의원인 이헌승 정각회장은 정각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지냈으며 국회 보좌관 시절, 불자 모임 ‘법우회’에서 활동하는 등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졌다.

이헌승 의원은 “불교계와 긴밀히 소통, 불교를 외호하고 주요 사안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임회장 취임법회는 6월 말 열릴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지 출토 성보 소유권 확보 나선다

매장문화재특위, 6월 12일 회의
현장 방문 추진…법 개정 요구

조계종 사찰 소유 토지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법 미비로 국가에 성보가 귀속되는 현행법의 현황을 바로잡고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앙종회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소유권 여부를 심사한 후 소유권이 결정된다. 해당 지자체에서 발견 사실을 90일간 공고한 후 원소유자가 나타나면 절차에 따라 돌려주고 소유권 주장이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된다.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발굴된 유물의 소유자가 사찰임이 명백함에도 소유권 판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정부와의 협조 체계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위가 구성된 배경과 사찰매장유산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어 총무원 문화부 문화재팀,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등과 연계, 대표 사례를 찾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성보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장 호암 스님은 “불상은 문화재이기 이전에 예경 대상이므로 수장고에 있어선 안 된다”면서 “사찰 복원 불사 등 불교계도 노력을 기울여 사지에서 나온 성보들이 불교 소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장 방문과 세미나 등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23년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구성됐다. 위원장 호암 스님을 비롯해 진각 스님(통도사), 삼조 스님, 종봉 스님, 허허 스님, 정관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 문화부장 혜공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임은호 기자



제법 셌던 부안 지진, 사찰 전각·불상 피해

국가유산청, 부안군 일대 국가유산 긴급점검

내소사 대웅전 변위 발생
개암사 불상 불두 파손돼
접근 금지 등 조치 실행해
"신속한 복구 최선" 약속

신중일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으로 사찰 전각과 불상이 파손되는 피해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부안군 일대의 국가유산 피해 상황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12일 오후 4시 현재까지 국가지정유산 3건, 시도지정유산 3건 등 6건의 국가유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오전 8시 30분에 지진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중대본 1단계 발령에 따라 국가유산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등을 중심으로 국가유산 피해 상황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실은 현지조사단을 부안군에 급파해 부안 내소사, 개암사, 유천리 요지 등에 대해 정밀계측 및 드론을 이용한 상태확인 등 지진지역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보물)에서 전면 앙토(서까래 사이 바른 흙)가 탈락되고, 내부 우측 공포와 우측면 서까래 등의 위치가 이동된 것을 확인했다. 내소사 설선당(시도유형)과 요사도 출입문 위의 앙토가 탈락되는 피해를 입었고, 경내 담장석이 지진으로 이탈되기도 했다.

부안 개암사 대웅전(보물)은 담장에 균열이 가고 기와가 파손됐으며, 개암사 석가여래 삼존불좌상(시도유형)은 불두 좌측 장식이 탈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피해 전각과 불상 등에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립부여·나주·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부여 부소산성, 나주 복암리 고분군, 완주 상운리 고분군 등 주요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긴급 실시했으며,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부안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좌상의 보관 장식이 탈락됐다.(사진 왼쪽) 탈락된 보관 장식이 불상 옆에 떨어져 있다. (사진 오른쪽)

지진 발생 직후 피해 현장인 부안 내소사와 개암사 일대에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조속한 복구를 약속했다.

최응천 청장은 "지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돌봄센터 등의 경상 보수 인력 투입과 긴급보수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진도 4.8의 지진으로 부안군 일대에 폭음과 함께 건물과 유리창이 심하게 흔들리는 피해가 있었다.

사찰 관계자들은 "큰 피해는 없었지만 혹시 모를 여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신행연합조직 '불교학생연합' 출범한다

건학기본기관장 제25차 회의
불교학생연합 출범 계획 발표
6월 26일 중강당서 기념법회
단일 대학 최대 신행조직 예상

동국대 학생 신행연합조직인 '불교학생연합'이 출범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6월 12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5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비롯해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정각원장 제정 스님, WISE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등 건학기본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학위원회 5대 공통 의제에 대해 기관별 성과와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동국인 신행활성화 의제에서는 '불교학생연합' 출범 계획이 발표됐다. '불교학생연합'은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불'과 창립을 완료한 14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유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신행연합조직으로 단일 대학에서는 최대 규모의 '학생신행연합조직'이 될 전망이다.

'불교학생연합'의 출발을 알리는 기념법회는 6월 29일 오후 3시 교내 중강당에서 봉행된다. 교직원 정기법회와 연계돼 열리는 이날 법회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서며, 동불과 단과대학·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회원들과 교직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법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생연합은 오는 9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불교문화축전'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최근 학교에서 제일 많이 변화한 점은 스님을 보면 학생들이 합장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면서 "서울캠퍼스에 15채, WISE캠퍼스 6채, LA캠퍼스에 1채, 현재 22채의 큰 집을 지었다. 앞으로 화두는 이 집들이 잘 유지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이 화두를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은 "동국의 변화는 지금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를 잘 유지하고 번성시키는 게 가장 큰 과제"라면서 "건학위원회 모든 구성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2학기부터는 연등 제작 교양 교과목이 신설된다. 이 과목을 통해 연등의 역사와 제작 이론과 실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며 "내년 연등회에서는 동국대가 제작한 수준 높은 전통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방송 제11대 사장 후보 추천 공모

7월 29일~8월 9일 후보 접수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현재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BBS불교방송의 신임 사장 후보 선출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자격 요건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불자로서, 불교 현대화 의지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불교방송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이다.

진흥원은 "방송의 경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조직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을 사장 후보로 모시고자 한다"면서 "특히 신심이 깊고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불교방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가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단에 '제11대 불교방송 사장 후보 천거'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8월 9일까지 8주간 이뤄지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제출 기간은 7월 29일 오전 9시부터 8월 9일 오후 5시까지다. 서류 제출은 진흥원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진흥원 이사회에서 최종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재)불교방송 이사회에 복수 천거하게 된다.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02-719-2606

신중일 기자

민추본, 정책자문단에 전문가 11명 위촉

6월 12일, 인적네트워크 구성
종단 · 단체 사업 자문 등 협업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가 6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을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사진〉

민추본은 2000년 민추본 창립시 정책기획위원회를 발족, 그동안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민추본의 남북교류사업관련 자문역할을 했다. 2007년 이후 남북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최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이에 남북교류사업 외 민추본의 모든 사업에 대한 자문단으로 역할을 변경하면서 '정책자문단'으로 발족하게 됐다. 기존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모두 정책자문단으로 새롭게 위촉됐으며 2명이 추가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총 11명이며 남북, 통일 등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권영경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로창현 미주언론 '뉴스로' 대표기자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 △이연희 사)겨레하나 사무총장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등이다. 자문위원단장에는 권영경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민추본 본부장 태효 스님은 "한반도의 평화 발걸음에 오늘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조언과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남북 갈등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자문단은 종단 및 민추본의 기조, 사업과 관련된 특정된 사업분야의 정기적인 회의 구조에서 상설 자문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 이루어지는 자문 외에도 민추본 교육관련 강의진행과 필요시 성명서 등의 자문, 세미나, 토론회, 집담회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가게 된다.

위촉식 후에는 '남북갈등 해법을 찾기 위한 민간,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집담회가 진행됐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대학생 입맛 잡은 든든한 한 끼 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청년밥心'
6월 12일 연화사서 본격 실시
3일 만에 선착순 20명 마감돼
영양소 골고루 담은 식단 제공
"자연스레 불교에 다가갈 계기"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왼쪽)과 사무처장 덕운 스님이 학생들에게 직접 배식하고 있다.

"뭘 좋아할지 몰라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쭈볏쭈볏 연화사 공양간에 들어선 대학생들에게 스님이 다정히 말을 건넸다. 스님의 한마디에 어색한 공기는 금세 따스해졌고, 학생들의 얼굴에도 자그마한 미소가 피어났다. "더 먹으라"는 스님의 재촉(?)에 학생들은 맛있는 반찬을 마음껏 접시에 쌓아 모처럼 '집밥'다운 식사를 즐겼다.

고물가와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점심밥을 제공하는 나눔 활동이 펼쳐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복지재단)이 6월 12일 서울 연화사에서 진행한 '청년밥心-마음을 키우고 마음을 찌우다'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업은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경희대에서 '불교행복혼' 초청 강의를 진행하던 스님은 학생들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방법을 고민하던 스님은 연화사 공양간을 개방, 사찰음식 한 끼를 대접했다. 학생들은 단순히 "맛있다"는 말보다 "집밥 같아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스님은 든든한 밥 한 끼가 식사의 개념을 넘어, 학생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심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 확신했다. 스님은 곧장 이웃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돌며 사전 조사를 시작했고,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어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갔다. 6월 5일엔 연화사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메뉴 구성과 사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그렇게 이날 점심 메뉴는 토마토소스 푸실리 파스타, 단호박·감자 튀김, 야채 부침개, 야채 샐러드, 감자국, 청포묵무침, 가지각색 나물 반찬이 선정됐다. 후식으로 연화사 신도회가 후원한 수박과 요거트도 덤이다.

정성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맛볼 수 있었던 건 단 20명. 복지재단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으로 사전 예약한 학생들이다. 예약 시작과 함께 3일 만에 조기 종료될 정도로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백수정 경희대 불교동아리 부회장(한의학과 2·24)은 "오늘 같이 온 친구 중엔 불자가 아닌 친구도 있다. 이 친구들이 불교문화와 사찰음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며 "간이 세지 않고, 입맛에 맞춘 메뉴가 많아 맛있게 잘 먹었다.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주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불교는 항상 의지처가 되는 종교이다. 사찰이 집처럼 맛있는 것을 먹고 따뜻한 곳으로 여겨지길 원한다"며 "학생들이 밥 맛있게 먹고 평안한 마음을 얻어 우리사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학기 중 매주 수요일 연화사에서 경희대를 비롯한 인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년밥심'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연화사를 시작으로 대학과 밀접한 곳에 있는 사찰과 연계해 '청년밥심' 사업을 확대·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업로드되는 재단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jabinanum) '청년밥心' 피드에 선착순으로 댓글을 남기면 된다.

삶에 지친 청·장년 7일 여행, '명상하라!'

세계명상마을, 7월 13~20일
'청 · 장년 명상힐링캠프' 개최

대중이 언제나 부담 없이 수행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국민선원(國民禪院)'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삶에 지친 청·장년층을 위해 명상을 통해 몸을 돌보고, 마음을 살피는 특별한 캠프를 마련했다.

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 스님)은 7월 13~20일 '7일간의 멈춤 여행-선칠 집중수행' 청·장년 명상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명상총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세속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 여정이 될 전망이다.

그간 명상힐링캠프는 청·장년을 구분해, 2박 3일 등 짧은 일정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7박 8일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청·장년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청·장년이 한데 모여 장시간 수행으로 소통하면서 수행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참가자들은 캠프 동안 선명상 집중수행인 '선칠수행'으로 정진한다. 내면의 집중력을 키우는 참선·행선으로 일상에서 수행을 반복한다.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의 법문과 문답, 인터뷰로 스스로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도 갖는다. 종의 울림에서 고요함을 찾는 종송명상과 염력명상도 체험할 수 있다.

각산 스님은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인들이 이번 명상힐링캠프를 통해 직장 스트레스, 업무 압박 등 세속의 짐을 해소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대상은 20세부터 54세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숙박과 숙식은 무료로 제공된다. 당일 현장 접수는 불가하며, 숙소(개인실·다인실) 배정은 추첨으로 정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 세계명상마을(1577-4327)로 연락하거나 문자(010-6408-3280) 또는 이메일(gs3280@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아름다운동행, 튀르키예 '한국마을' 2차 지원

차양막 설치 · 식료품 지원
"조속한 일상 회복 기원"

지난해 튀르키예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선물했던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재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자비의 온정을 나눴다.〈사진〉

아름다운동행은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단지 '한국마을'을 방문, 튀르키예 한인회를 통해 식료품과 간식 등을 지원하고 각 가구의 차양막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에 위치한 '한국마을'은 이재민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하우스 단지다. 총 560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중 100동을 아름다운동행에서 지원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지진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건복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튀르키예 환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등 경제 사정마저 어려워지면서 지진 피해 복구는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구호의 손길도 점차 줄고 있다. 이재민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임시 일자리에서 얻은 수입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한국마을'에서 지내야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튀르키예 한인회와 협력해 한국마을 2차 지원에 나섰다.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철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을 막기 위해 한국마을 전체 가구에 철제 차양막을 설치했다. 각 가구에는 쌀과 렌틸콩, 올리브유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와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도 함께 제공됐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이재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조속히 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염원했다.

김내영 기자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2기 지원자 모집

7월 19일까지 참가 접수
7월 26일~8월 4일 열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첫' 출가학교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육으로 제2기 여성출가학교 참가자를 기다린다.

제2기 출가학교는 '나만 몰랐던 재밌는 출가생활-스님들과 열흘 살기'를 주제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여성출가학교는 한 달간 운영된 1기와 달리 기간을 단축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 많은 사람이 입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열흘간 봉녕사에 머물며 한국 전통 승가의 수행과 삶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고불식, 삼귀의, 오계를 수지하고 발우공양, 조석예불 및 사시불공, 운력, 실참수행 등 일과를 수행한다. 부처님 생애와 계율, 기초교리 등 교리 수업과 자비수참 기도, 일보일배를 하며 한국 비구니 승가 생활 전반도 경험한다. 행다선 명상, 붓다볼 명상,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 등 봉녕사만의 특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대중생활에 지장 없는 17세~60세 여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50만원이다. 단 고교생·대학생·대학원생·봉녕사 기초교리반 수료생에 한해 10% 할인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7월 19일까지 봉녕사 홈페이지(www.bongnyeongsa.org)에서 신청하거나 팩스(031-253-3877) 또는 우편(7월 18일 소인분)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7월 22일 봉녕사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발표된다.

김내영 기자

한국·베트남 불교, 현대적 관점서 살피다

한마음과학원, 6월 29일 학술심포지엄

한국 불교와 베트남 불교를 현대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6월 29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2024 한마음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한 한국과 베트남 불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마음과학의 국제화와 체계화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올해에는 2023년부터 학술교류를 시작한 한마음과학원과 베트남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종교와 사상 연구소가 활발한 학술토론과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호앙 티란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종교와 사상연구소 소장이 '베트남 불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한마음국제문화원 실장 청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가이드북'을,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일심이란 무엇인가'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한마음아카데미 연구실장 혜유 스님, 윤종갑 동아대 교수,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한마음선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신중일 기자

5년 만에 모인 공불련 "국민행복" 발원

6월 9일 법주사서 수계법회
사전 신청한 75명 수계받아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5년 만에 합동수계법회를 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공불련)가 국민 행복을 위한 공복(公僕)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공불련은 6월 9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에서 제21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전계사로 법주사 율주 무상 스님이 법상에 올랐으며, 사전 신청한 75명이 수계를 받았다.

정승윤 회장은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강원과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전 기관에 불자회장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오송의료행정타운 불자회도 구성됐으며, 과천 및 대전청사도 곧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생명나눔 홍보대사에 가수 김국환

6월 10일, 홍보대사 위촉식
환자 치료비 250만원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가 '타타타' 김국환 가수를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일면 대종사는 6월 10일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가수 김국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사진〉

일면 대종사는 "김국환 가수의 대표곡 '타타타'의 가사는 삶을 관조하는 불교 철학을 담은 법문 같다"면서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를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 기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국환 홍보대사는 "여러 봉사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에 따라 마음이 이끌려 생명나눔 홍보대사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미력하게나마 본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큰스님께서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환자 치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 생명나눔은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으로 고통받는 17세 환자에게 25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환자를 대신해 담당 사회복지사가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지작사 군종법사, 군포교 활성 방안 토의

6월 11~12일, 선봉사 교육관서
전역 장병 신행활동 방안 모색



지상작전사령부 군종법사들이 군포교 활성화를 발원하며 지혜를 모았다.

지작사 군종법사들은 6월 11~12일 지작사 군법당 호국 선봉사(주지 정행 이익수 법사) 교육관에서 직능토의를 개최하고, 군포교를 위한 전법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장 자광 대종사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지작사 예하 법사 40여 명이 참석했다.

직능토의를 주관한 정행 이익수 법사는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지작사 예하 법사들이 다시 한번 불법홍포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올바른 군불자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일차 토의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법당으로 군법당을 신축 중인 곳과 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부대의 군법사가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군법당 신축 과정 노하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와 함께 전역 장병들을 위한 신행활동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내영 기자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법형제회는 6월 8~9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2024년 수련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수련회 회향 후 이뤄진 단체 기념촬영 모습.



이원식 법형제회 포교 부회장이 발원문을 대표 낭독하고 있다.



마음을 밝히는 촛불재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이 촛불에 불을 붙이고 있다.



마음을 밝히는 촛불재에서 법형제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法으로 맺어진 형제들 '五共' 가르침 되새기다

한마음선원 본원 법형제회, 6월 8~9일 수련회

양평=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모습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지만, 그 살림살이와 근본은 다 똑같은 겁니다. 얕잡아 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 스승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만생이 다 이렇게 나와 같이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생전 육성 법문이 강당을 채웠다. '법(法)'으로 맺어진 250여 '형제'들은 선사가 설한 '오공(五共)'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법형제회(회장 이동복)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2024년 수련회를 개최했다.

'공체, 전체가 연결되는 한 뿌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수련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한 본원 사중 스님들과 250여 법형제회 회원들이 참여했다.

韓불교 최대 거사 신행조직 '법형제회'

한마음선원 법형제회는 "한 집안의 가장이 앞장서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진해야 그 가정 전체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는 대행 선사의 1990년 3월 법문에 바탕으로 그해 6월 발족했다. 그해 8월 5일 첫 정기법회를 봉행한 이후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정기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법형제회는 현재 본원에만 500여 명, 전국적으로 1000여 회원이 등록·활동 중인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최대 거사 신행 조직이다.

6월 8일 오전 안양본원에서 고불식을 올린 법형제회는 블룸비스타 그랜드볼룸에서 입재식을 봉행하며 본격적인 수련회 일정을 시작했다.

입재식에서는 대행 선사가 1992년 10월 4일 법형제회 법회에서 설한 육성 법문이 상영됐다. 대행 선사는 '나의 근본이 곧 우주의 근본'을 주제로 한 법문을 통해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행 선사는 육성법문에서 "못났듯 잘났듯 자기가 바로 자기 마음을 계발하면서 거기까지 한자리를 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에 '모든 마음들은 근본에 의해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모든 생명의 근본은 하나다.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불바퀴'라고 한다. 그 전력은 누구나가 다 끌어 쓸 수 있는 전력"이라고 설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모든 법형제들이 대행 선사의 한 제자로 연결됐음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한마음 주인공 한 뿌리로 연결되고, 대행 선사의 한 제자로 연결돼 수련회라는 불사를 이루고자 결집한 이 자리는 한마음 에너지가 넘친다. 이 에너지는 거사 회원들이 40여 년 간 함께 걸어온 역사"라고 상찬하며 "오늘 수련회 토론의 장에서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서로에게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이 '마음공부와 웰빙 · 웰다잉'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공체, 전체가 연결되는 한 뿌리' 주제로 열려…250여 대중 참석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다시 열려
혜솔 스님 '마음공부와 웰빙' 특강
법형제회 발전방향 등 주제토론도

이동복 법형제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법형제회 수련회는 2019년 말에 시작된 팬데믹으로 약해진 회원간 결속력을 되살리고 위축됐던 신행활동을 재개하는 재발심의 뜻을 모아 개최했다"며 "수련회를 하는 동안 근본자리에서는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잊지 않으며 자유롭고 당당한 대장부의 길을 굳건히 다져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혜솔 스님 생활밀착형 특강 '눈길'

입재식 이후에는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의 '마음공부와 웰빙·웰다잉'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혜솔 스님은 노령화가 이뤄진 법형제회 회원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특강을 진행해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스님은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내 자신의 장례를 자신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자주 대화하며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많은 법형제들이 이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내나 자녀에게 맞는 맞춤형 사랑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물리적 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혜솔 스님은 웰빙의 개념이 육체적 건강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마음공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행 선사의 법문이 바로 웰빙과 웰다잉이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기 위해서다. 결국, 웰빙·웰다잉하기 위해서는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에는 팀별 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16개 팀들은 △생활 속에서 만난 대행 선사 법문 △내가 만난 대행 선사 일화 △법형제회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수련회에서는 마음을 밝히는 촛불재와 회원 화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으며, 이튿날에는 건강 증진을 위한 9988운동, 선법가 배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법형제회 '세대 전승' 첫발 의미

이번 수련회는 법형제회의 '세대 전승'의 첫발이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청소년·대학생·청년회를 거쳐 법형제회에 가입한 법우들이 처음 수련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청년회에서 활동하다가 법형제회로 옮긴 박훈(39·관실) 씨는 "결혼도 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법형제회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함께 활동했던 청년회 법우들과 법형제회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사실 법형제회에 궁금한 것이 많았다. 아버지 연배를 가진 분들과 담선을 나누기는 쉽지 않다. 팀별 토론회에서도 연륜이 있으신 만큼 유연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형제회도 고령화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적은 인원으로 알차게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선배들을 잘 모시고, 시대에 공감하고 부응할 수 있는 신행활동을 펼치는 모임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종수 신도회 명예회장(76·태송)은 "5년 만에 수련회를 통해 법형제회 회원들을 만날 수 있게 돼 반갑고 화합도 잘 이뤄지는 느낌이다. 신심도 샘솟는다"면서 "특히 이번 수련회는 청년회에서 20여 명이 올라왔고, 어린이회 학부모도 10명가량 들어왔다. 이번 수련회는 법형제회 세대전승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가입한지 10년 만에 수련회에 참석한 김성수(51·우천) 씨는 법형제회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김성수 씨는 "10년 전 개인적으로 많은 우환이 있었는데 한마음과학원 공생실천과정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만나고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법사스님이 지속적인 정진을 위해서 법형제회를 추천해줘 가입·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신입회원을 모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한마음과학원의 공생실천과정, 심화과정을 다시 들으면서 저와 같이 방황하는 법우들을 이끌어주고 싶다. 나아가 법형제회와도 인연을 맺게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최고급 합장주 할인
합장주 100개 55,000원
어린이합장주 100개 50,000원
백중 제품 할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보시 용품 염줄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140,000원
만월등 사업등
연잎 리본 100개 할인가 23,000원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등 승강기 설치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할인 식물성 통초
7일초 60,000원
5일초 65,000원
3일초 65,000원
1일초 90개 75,000원
15일초 12개 95,000원
할인 국산 식물성 팜초 (최상급)
7일초 20개 95,000원
5일초 24개 100,000원
3일초 40개 100,000원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할인 수입양초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밀대 50개 55,000원
할인 국산양초
밀대 50개 6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할인 파라핀 1.8리터 1BOX(12병) 5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매장에 오신 손님 대폭 할인됩니다.
재고 소진시까지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성파시조문학상 대상에 박명숙 시인

6월 22일 통도사 서운암서 시상

대상作에 박명숙의 '적벽'
문학상 등에 총 4인 수상
총상금 2400만 원 수여해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가 대상 수상작과 문학상 수상작 2점, 작가상 수상작 2점 등 총 5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상 박명숙, 문학상 조한일과 김정, 작가상을 수상한 조우리, 윤현숙 작가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서송 스님)가 대상 수상작과 문학상 수상작 2점, 작가상 수상작 2점 등 총 5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제41회 성파시조문학상 대상 수상작은 박명숙 시인의 시조 '적벽'이 선정됐다. 박명숙 작가는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분 당선자이며 이후 시집 〈맹물 같고 맨밥 같은〉 〈그늘의 문장〉 〈어머니와 어머니가〉〈은빛 소나기〉 시선집 〈찔레꽃 수제비〉으로 활동 중인 중진 작가이다.

심사위원회는 "한없이 경박해지는 우리 시단의 시류와는 달리 '적벽'은 탁월한 시적 논리이며 정신적 존재를 드러내는 귀중한 언어의 지표"라며 "대상 선정에 이견 없이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성파시조문학상에는 조한일과 김정 작가이다. 조한일 작가는 2011년 〈시조시학〉으로 등단해 시조집 〈지느러미 남자〉 〈나를, 서성이다〉 등 시집을 낸 작가이다. 이번 수상작품은 '도서관에서 추사를 만나다'이다.

김정 작가는 2004년 〈현대시조〉로 등단해 부산여성문학상 본상 및 부산시조 작품상, 부산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가이다. 이번 수상 작품은 '장경각 암각화'이다.

성파시조문학작가상에는 조우리와 윤현숙 작가의 작품이 선정됐다. 조우리 작가는 2024년 〈조선일보〉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수상작은 '가구박물관에서'이다.

윤현숙은 2022년 〈부산시조〉로 등단했으며 부산시조 시인협회사이버 백일장에서 차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작품은 '잔도, 소금꽃 피다'이다. 시조평론 부문에서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시상식은 6월 22일 오전 11시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상은 1000만원, 문학상에는 각 500만원, 작가상은 각 2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시상에 이어 수상자 시조작품 낭송회도 진행된다.

운영위원장 서송 스님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를 사랑하는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의 큰 관심이었던 '성파시조문학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조의 가치를 더욱 고양 발전시키고 있는 제41회 성파조시문학회 시상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고려 후기부터 800년을 이어온 민족시인 시조에 더욱 큰 사랑과 영예의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줄 것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성파시조문학대상'은 작품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 받은 후 5월 12일 심사를 진행했다. 국내 서울 및 부산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조 시인 162명이 참여했으며, '성파시조문학대상' 부문 접수자는 선고위원이 선정한 등단 15년 이상 시조시인의 시조집을 제출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성파시조문학상'은 등단 5년 이상의 문인을 대상으로 미발표 창작 시조 2편을 응모 받았다. '성파시조문학평론상'은 미발표 시조평론 1편이 접수 자격으로 진행됐다. '성파시조문학작가상'은 등단 5년 이하 문인 및 미등단자를 대상으로 미발표 창작 시조 2편을 응모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성파시조문학상은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1984년 10월 26일 첫 시상식을 개최하며 시작했다. 2015년 32회까지 부산과 경남 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2016년 33회부터 부산, 경남, 울산, 해외로 공모 지역을 넓혔다. 지난해에는 전국으로 응모 접수를 확대했으며 일반인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지난 40회 시상식을 기념해 〈성파시조문학〉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불교 전법·계몽 운동 유지 이어가겠습니다"

선진규 원장 4주기 추모법회
6월8일 봉화산 정토원서 봉행



김해 봉화산 정토원은 6월 8일 선진규 원장 4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사장 선건)이 선진규 정토원장 4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6월 8일 정토원 수광전에서 봉행된 선진규 원장 4주기 추모법회는 개회, 삼귀의, 선건 이사장 인사, 현각 스님 인사, 주지 등명 스님 인사 및 선진규 원장 시 소개, 불공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인 대중들은 선진규 원장을 추모하며 불법 포교활동과 나라와 사회발전에 헌신한 마음을 담아 한마음으로 동참 발원했다.

선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故 선진규 원장은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은 언행을 하자. 남들에게 욕먹지 않은 언행을 하자. 일체중생에게 무상보시 언행을 하자는 정토수행 3수칙을 유언으로 남기셨다" 며 "4주기를 맞아서 모두가 정성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다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선진규 원장은 생전 절대 평등의 원칙, 생명에 대한 절대 평등의 원칙을 설명해 주셨다" 며 "부처님을 받드는 것은 자유 평등 평화라는 생각으로 수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토원 주지 등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정토원의 사부대중들이 지혜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정토원 도량이 부처님의 마음 공부를 하는 지혜의 도량으로 나아갈 것을 기원한다" 며 "어린이 청소년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이 도량이 젊은이들의 기운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새로운 불교를 시작하고 그들과 같이 손잡고 평화롭게 화합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故선진규 원장은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후 조계종 상임포교사 및 전국신도회장 등을 역임하고 포교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농촌 계몽운동과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선진규 원장은 "정토원을 시민 ·불자들의 마음의 쉼터로, 나눔의 장으로, 성찰과 반성의 기도도량으로,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을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광명사, 순국선열 추모법회

6월 9일 경내 지관전서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스님)가 6월 9일 지관전에서 '불기 2568년 순국선열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추모법회에는 천태종 원로위원 도산 스님, 울산 정광사 주지 화산 스님, 일초 스님, 광성 스님 등 종단 스님과 부산금정구불교연합회장 동암 스님을 비롯해 백종헌 국회의원,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김원종 6.25 참전유공자회 금정지회장, 김동진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금정지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광명사는 추모법회에 앞서 일제강점기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독립군과 광복군에 투신하고, 또 한국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던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천도위령재를 봉행했다. 이어진 추모법회에서는 영단에 추념과 헌화, 헌향으로 축원했으며 △육법공양 △삼귀의례 △국민의례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반야심경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헌화, 분향 △개회사 △봉행사 △추모법문 △추모사 △추모가(광명사 법화합창단) △아미타불 정근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단오 맞아 용왕재 봉행

6월 10일 경내 일원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6월 10일 경내 일원에서 단오를 맞아 용왕재를 봉행하고 화재 예방과 안전을 기원했다.〈사진〉

용왕재에는 종정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이 동참했으며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염불원 스님들이 집전하는 용왕재 의식이 이어졌다. 이후 참여 대중들은 경내를 돌며 안전을 기원했으며 '항화마진언'이 담긴 봉투에 소금을 담아 대중에게 나눴다. 이어 통도사 주요 전각 및 요사채 등 기둥에 소금단지를 올리고 화재 예방을 기원했다.

성파 대종사는 "오늘 용왕재를 봉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화가 공덕을 태우지 않도록 잘 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대원사, 수행환경권 수호법회

재개발 사업에 소실 위기 직면



부산 남구에 위치한 태고종 대원사(주지 혜월 스님)가 6월 7일 법당에서 수행환경권 수호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대원사는 신도 불자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행환경권 수호대법회를 개최하고 30년 간 이어져 온 포교 전법도량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개발에 동의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위법망구의 자세로 임할 것을 결의했다.

대원사 주지 혜월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당한 재개발 대책으로 한순간 도량이 갈 곳을 잃게 되었다"며 "도량 수호와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기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모든 호국영령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홍법사, 제34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봉행

6월 6일 호국선열 넋 기려
숨결대회 2000여 명 참가

이도경 부산지사장


홍법사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경내 일원에서 ‘제34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와 제12회 호국의 숨결대회’를 봉행했다.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경내 일원에서 ‘제34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와 제12회 호국의 숨결대회’를 봉행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홍법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주최하는 호국 영령 천도의식으로,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유지를 이어 매년 봉행하고 있다. 또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추모재를 함께 열어 불교홍포 및 교육 사업에 앞장선 창건주의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행사는 천도재 및 백중 입재로 시작을 알렸으며 개회사 및 헌다, 삼귀의, 보현행원, 반야심경, 묵념, 경과보고, 내빈 소개, 환영사, 인사말, 추도사, 봉행사,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 패트릭 도나호 예비역 소장 외 콜럼버스 대학생 12명, 스테펜 채프먼 목사 외 미해군 11명, 김정민 53사단 중령, 류완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 강용창 부산경찰불자회장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호국 영령과 참석자 여러분께 마음 모아 고맙고 감사하다”고 봉행사를 전했다.

스테펜 채프먼 군종 목사는 “이 아름다운 행사에 주지스님의 초대로 참여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다”며 “저의 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이셨는데, 아들인 제가 한국에 와서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다. 저를 비롯해 유엔군의 모든 사람은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재생 신도회장은 “이 행사는 홍법사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님의 뜻에 따라 허공에 계시는 호국 영령에게 공양을 올리는 매우 뜻 깊은 행사다”며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가 더욱 발전 계승되어 이 땅에 불국토의 원력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도나호 예비역 소장은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발전된 모습을 보기 위해 12명의 학생들과 이곳에 왔다며 그중 2명의 학생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에 이어 오후에는 청소년에게 호국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한 제12회 호국의 숨결대회가 열렸다. 호국의 숨결대회는 글짓기, 그리기, 서예 세 분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 창립된 1990년부터 시작, 34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1996년에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로 명칭을 변경하고 두구동 신창농원(현 홍법사)에서 봉행됐다. 2003년부터는 조계종 홍법사와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이 (재)불심홍법원의 뜻을 계승하고자 행사를 공동주최했다. 2011년부터 매년 해외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 그들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호국의 숨결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7년부터 우란분절 백중 입재와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추모재를 함께 봉행하고 있다.

한편, 홍법사는 7월 7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 스님의 초재를 시작으로 2재 대만불광산 태국도량 태화사 주지 심정 스님(7월 14일),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7월 21일),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7월 28일),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8월 4일),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8월 11일)에 이어 8월 18일 심산 스님의 회향 법문으로 우란분절 49일 백중기도를 진행한다.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 연수회

6월 9일, 마곡사 템플스테이관서



조계종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단장 최종대)은 6월 9일 마곡사 템플스테이관에서 불기2568년 분야별 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연수에는 마곡사 총무국장 원묵 스님, 지도법사이자 마곡사 포교국장 서안 스님과 지역단 포교사 150여 명이 동참했다.

최종대 대전세종충남지역단장은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적인 봉사 인력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불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 적극 참여하자”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서광사, 시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6월 8일 경내 특설무대서 개최



서산 서광사(주지 도선 스님)는 6월 8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15회 서산시민과 함께 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산사음악회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광사 주지 도선 스님은 “탁 트인 자연의 공간 속에서 석양과 산바람을 맞으며, 다양한 음악의 선율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불교계 소외계층 위한 자비나눔

울산불교신도회 · 덕원사 · 법륜사



(사)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영수)가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 법륜사(주지 남수 스님)와 함께 자비나눔을 실천했다.〈사진〉

이영수 울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6월 12일 덕원사 경내에서 울산지역 소년소녀가정에 백미 55포, 라면 50박스, 기프트 카드 25매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법륜사와는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소 (사)복주리 울산지부를 방문해 백미 50포를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내소사 우암당 혜산 스님 19주기 추모재

6월 11일 대웅보전서 봉행



전북지역 대표 선지식이자 내소사 중창주 우암당 혜산 스님의 19주기 추모재가 6월 11일 내소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추모재에는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과 진학 스님 등 상좌스님들과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조계종 어산어장 원명 스님 등 문중 원로스님, 선운사 한주 범여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강천사 주지 심학 스님 등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들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문도를 대표해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스님의 19주기를 맞아 동참해 주신 원로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암당 혜산 스님은 1963년 내소사에서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총림 해인사 선원장, 조계사 주지, 내소사 회주, 한일불교교류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2005년 6월 13일 내소사에서 세수 73세, 법랍 43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리산 화엄사, 하림 스님 초청 법회

6월 1일, 경내 화엄원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6월 1일 경내 화엄원에서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초청 화업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화엄법회에는 교구 말사 주지스님과 신도를 비롯해 국제포교사 회원들이 동참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지역민이 인정하지 않는 사찰은 존재의 가치가 없고, 지역민과 함께하지 않는 사찰과 종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화엄사가 ‘화엄’이라는 이름답게 여러분에게 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청 법사로서 법상에 오른 하림 스님은 “우리가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믿음과 신심, 그리고 수행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처님의 일생을 저의 소의경전이라 생각하고 어디 가나 갖고 다닌다. 만일 부처님의 말을 듣고 싶으면 이 책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동국대에서 최근 발행한 책 〈붓다〉를 권했다.

이날 화엄법회에서는 국제포교사의 사찰수련회 입재식도 겸했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양산 내원사, 천성산 산신재 봉행

국태민안 · 생태환경 보전 발원



양산 내원사(주지 지도 스님)는 6월 10일 천성산 정상인 원효봉에서 산신재를 열고 천성산과 화엄벌 일대 자연 보호와 지역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사진〉

지도 스님은 “많은 시민이 깨끗한 천성산을 찾아 힐링할 수 있길 발원하면서 산신재를 지내왔다”며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장경 연구에 대한 독보적인 책!
새로 쓰는 대장경의 성립과 변천
인도에서의 불교경전 성립에서부터 티베트,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의 전래와 그들 지역에서의 경전 수용과 번역, 변용의 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교토불교각종학교연합회 편/박용진 · 최종남 역/신국판/388쪽/값 25,000원

마음에 관한 가장 깊고 치밀한 탐구!
유식학으로 보는 몸과 마음
현대 심리학의 개념인 인간의 ‘정서’와 ‘인지’를 유식학의 관점에서 논하고, 나아가 양자를 비교 분석하여 몸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안환기 지음/신국판/340쪽/값 23,000원

‘클래식’과 ‘불교’를 융합하는 독창적 시도!
클래식, 경계를 넘어
‘보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클래식과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붓다의 가르침이 만나 엮어내는 심포니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김준희 지음/국판변형/240쪽/값 20,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상 저작권 소송…작품 or 예경 대상

4m 상당 대일여래상 10년째 오리무중
사찰 · 작가 간 의견대립 격화되면서
소유권 · 저작권 상반된 주장 몸살
공개 기다린 사부대중 우려 목소리

박영빈 객원기자


코쿠분지의 의뢰로 조성이 진행 중인 대일여래상.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일본 다카마츠(高松)시에 소재한 사누키 코쿠분지(讃岐国分寺)에서 조성하는 대일여래상을 둘러싸고 사찰 측과 조각가 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찰의 소유권과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면서 불상의 공개를 기다리는 사부대중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지난 5월 24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자세히 보도했다.

약 500여 년 전 코보대사가 구상해 조성한 대일여래상은 헤이안 시대에 교토의 토지(東寺)에 봉안돼 있었으나 15세기 말의 민란으로 인해 소실됐다. 이후 새롭게 조성됐으나 당초의 불상과는 일부 변형이 있는 것으로 전한다.

사누키 고쿠분지의 주지인 오츠카 슌지 스님은 지난 2012년, 개산 1200주년을 기념해 토지에 전해오는 역사서와 당시 불상의 모습을 전하는 사료들을 바탕으로 소실 전의 대일여래상을 재현할 것을 발의했다. 이에 13년에 도쿄의 조각가 오모리 아키오에게 조성을 의뢰했다.

코쿠분지 측은 "현존하는 사료들에 따르면 당시 코보대사가 조성한 대일여래상의 특징들이 적혀있다. 그러나 불명확한 점들도 있어 이 부분은 경전적 근거와 조각가와 협의를 통해 조성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자료조사와 협의를 통해 높이 약 4m의 불상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계획에서는 제작기간에 3년을 예정했으나, 세부적인 사항이 조율됨에 따라 제작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비용 역시 약 8100만엔(한화 약 7억원)이 소요, 코쿠분지 측이 전액을 지불했다.

사찰과 조각가 양측은 불상의 점안식과 대중공개를 위해 불상을 도쿄에서 사찰로 이운하는 일자를 지난해 8월로 설정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상의 공개 방법에서 의견이 나뉘면서 오모리 씨는 "불상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사찰 측은 불상의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도쿄 지법에 신청, 지법의 결정으로 지난해 11월에 조립 전의 불상이 절에 인도됐다. 그러나 오모리씨가 이와 동시에 작가의 승낙 없이 절이 불상을 조립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요구를 다카마츠 지재에 신청했다. 이에 동년 12월 지재는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해 사찰의 독단적인 불상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양측은 두 결정에 대해 서로 불복을 제기, 보전이의심이 도쿄, 다카마츠 각 지재에서 진행되고 있다.

코쿠분지 측은 "최초 예정공기였던 3년을 넘긴 상황에서 불상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더욱이 제작과정에서 사찰 측이 구체적인 지시와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불상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사찰에 있다. 당초 계획대로 완성된 불상을 대중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각가 측은 "이미 완성된 부분의 수정을 사찰 측으로부터 요구받는 등 원활한 제작의 방해를 받았다"며 완성이 늦어진 책임을 부정했다. 또한 "이 불상은 조각가의 사상이나 심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 작가의 동의 없이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길어지는 법정 공방에 대중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미술 작품에 앞서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사찰이 주문한 불상에 무리한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를 이루고 있다. 불상 조성에 기부했다는 한 남성은 "오랫동안 불상이 공개되지 않아 문제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했지만 이런 사정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달라이라마, 무릎 치료 위해 미국 방문

2017년 이후 7년 만의 방미
사무국, 쾌유 위해 기도 요청도


최근 다람살라에서 열린 법회를 주관한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무릎 치료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이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대중들에게 달라이라마의 건강과 쾌유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월 6일 '파율 닷컴' '더 티베트 넷' 등은 달라이라마의 일정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수년 전부터 무릎의 이상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치료가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의 한 소식통은 "달라이라마의의 무릎 통증은 노령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일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장거리 이동 등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달라이라마의 미국 방문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7년 만의 방문이다. 마지막 방문에서 달라이라마는 뉴욕에 위치한 메이요 클리닉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3일,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6월 20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중접견을 포함한 달라이라마의 공식 일정이 없음을 공지한다. 달라이라마는 무릎 치료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며, 치료 후 다람살라로 돌아와 예정된 일정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달라이라마의 건강과 빠른 쾌유를 위하여 달라이라마를 따르는 사부대중들에게 약사여래의 진언을 염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무국은 "약사여래는 불교에서 치유와 의학에 깊은 인연이 있는 본존"이라며 "약사여래의 진언인 '때야타 옴 베카제 베카제 마하 베카제 베카제 라자 사무가떼 쓰와하'는 몸과 마음에 치유를 가져오고 고통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6월 30일까지 이 진언들의 염송 횟수를 모아 달라이라마의 건강을 위해 회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현재 세계 각지의 티베트 난민 공동체에서는 달라이라마를 위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스스로 110세 전후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나를 믿고 따라주는 많은이들을 위해 그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베트남 정부, SNS 인기 '순례자 스님' 구금 논란

소박 · 겸손 전법 모습 화제 일자
당국, '비공식 승려'라며 구금 추정


레 안 투의 순례 모습.
사진출처=RFA

틱 민 튜(Thich Minh Tue) 스님으로 더 잘 알려진 베트남 남성 레 안 투(Le Anh Tu·43)를 베트남 당국이 구금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월 11일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 RFA)는 "투가 구금됐다"며 "국제적으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투는 삭발한 머리, 수선한 가사 3벌, 오래된 탁발 그릇을 들고 2017년부터 6년간 베트남 전역을 순례 중이다. 어떤 승단이나 사찰에도 속하지 않은 채 순례하며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한다.

최근 이 같은 그의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베트남 불자들과 누리꾼들의 큰 지지를 받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각종 부패로 얼룩진 베트남 고위 승려들과 비교하며 추종했다. 다만 그는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식 승려가 아닌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평범한 불자다.

당국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 2일 새벽 그의 야영지를 급습해 투와 지지자들을 연행, 강제 구금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베트남 당국은 6월 8일 공영방송 VTV를 통해 최근 투의 근황을 공개하며 "투가 자발적으로 순례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은 여전히 투에 대한 당국의 억압을 의심하는 상황이다.

베트남의 한 사회 운동가는 "당국에 의해 공개된 투의 모습은 그가 큰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베트남 당국은 투가 정식 승단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일종의 반역으로 간주해 통제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4년 연례 보고서에서 베트남 정부에 대해 "모든 종교 활동을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신앙 공동체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종종 괴롭히거나 구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정현 기자

팝스타 카밀라 카베요 "불교에 빠졌어요"

팟캐스트 출연…불교 애정 드러내
"불자로서 전보다 현명해져" 소회


미국 팝가수 카밀라 카베요. 사진출처=야후뉴스

노래 '하바나' '세뇨리따'로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은 미국 팝가수 카밀라 카베요(Camila Cabello·26)가 "정말로 불교에 빠져 있다"며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5월 22일 뱅 쇼비즈(Bang Showbiz) 등 외신에 따르면 카밀라 카베요는 최근 'Armchair Expert' 팟캐스트에 출연해 "명성과 성공에 따른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불교의 철학적 사상을 포함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발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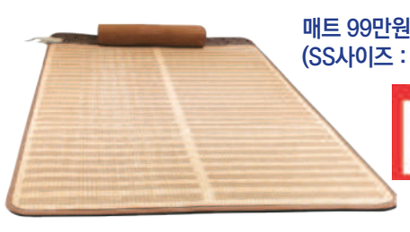
카밀라는 "오늘날 내 성격의 많은 부분들은 도구와 기술, 그리고 내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개발해야 했던 메커니즘으로 형성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예를 들어 나는 과거에만 해도 내가 불교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며 "그런데 내 스스로 차분함과 인내심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필요에 의해 불교에 접근했다. 이후 불자로서의 나는 이전보다 더 현명해졌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카밀라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신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미국 걸그룹 '피프스 하모니(Fifth Harmony)' 멤버로서 10대 시절 큰 인기를 얻고 개인 활동을 시작한 후 '하바나'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생의 균형을 찾지 못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요리와 운전과 같은 평범한 것들을 익혔다. 가장 평범한 삶을 살면서 삶의 이상적인 균형을 찾았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그림·묵서에 담긴 '참나' 찾는 여정

해인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심우도팔폭병풍 등 묵서 전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해인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에 출품되는 '심우도팔폭병풍' . 동산당 혜일 대종사가 친필로 남긴 송(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우도(尋牛圖)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야생의 소를 길들이는 데 비유하여 10단계로 그린 그림이다. 이는 선종(禪宗)에 전해 내려오는 그림으로 한국에는 송나라 때 제작된 곽암본과 보명본이 모두 전해지고 있다.

달마도와 더불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심우도는 언어와 어떤 이론에도 의존하지 않고 마음의 실상을 찾아 부처가 되는 이상과 원리로 삼는 선의 종지를 그대로 담아낸다. 결국, 마음의 소를 찾는 여정이 심우도에 그려지는 것이다.

선지식들의 묵서와 선종화를 통해 참나를 찾아보는 전시가 마련됐다.

법보종찰 해인사 성보박물관(관장 현석 스님)은 기획전 '참나를 찾아서'를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갤러리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심우도팔폭병풍, 소정 변관식 달마도, 성철·혜암·법전 스님 등 고승대덕의 묵서 등을 선보인다.

전시는 총 3개의 주제로 관람객이 참나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1부 '자연과의 교감'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림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과 하나되는 교감을 이뤄 참나를 찾는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한다.

제2부 '공(空)을 찾는 여정'에서는 심우도 속 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은 존재의 실상임을 깨닫기 위한 수행은 참나를 찾는 여정임을 이해하고, 삶의 화두를 던져본다.

제3부 '선지식의 이정표'에서는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어 온 한국 근현대 선지식들의 묵서가 자리한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선지식들이 남긴 글씨가 들려주는 법음(法音)은 진정한 참나를 찾는 이들의 이정표가 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전에 소개되는 불교문화유산 중에는 '심우도팔폭병풍'을 주목할 만하다. 10개의 심우도 장면 중 8폭의 병풍으로 구성되어, 삶의 화두를 던지고 소를 찾는 과정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각 그림에 적힌 송(頌)은 동산당 혜일 대종사의 친필로, 화두를 찾아가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동안 심우도에 적힌 게송이 동산스님의 필적 진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왔으나, 심우도에 찍혀 있는 '용봉(龍峯)' 낙관과 심우도송 끝에 '무인중추유희삼매중용봉제(戊寅仲秋遊戱三昧中龍峯題)'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봉은 1939년 성철 스님의 은해사 운부암 안거증을 통해서 동산스님의 법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인사성보박물관장 현석 스님은 "한민족에게 〈삼국유사〉가 차지하는 가치처럼, 동산 스님의 '심우도팔폭병풍'은 불교계의 보물"이라며 "동산 스님께서 찾으신 '소'가 성철 스님으로 이어졌듯이 앞으로도 참나를 찾는 이들에게 북극성 역할을 할 것"라고 밝혔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진우 사진전 개최

범어사 성보박물관(박물관장 정오 스님)이 금정산, 범어사를 담은 사진전 '금정산 빛그리메'를 개최한다. 사진은 부산 역사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전문 사진작가 문진우의 작품이며 오는 6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범어사 성보박물관 2층에서 개막식이 진행된다. 전시는 개막 후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문진우 사진전 '금정산 빛그리메'는 지난 5월 1일 개막한 특별전시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과 함께하는 기획이다. '금정산 산 그리메'가 겹쳐진 산등성이의 풍경으로 금정의 역사와 문화를 담았다면, '금정산 빛그리메'는 빛의 예술 사진에 담긴 금정의 자연을 담았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부산의 대표 사진가 문진우 작가가 담은 금정산의 순간을 범어사에서 만나게 되어 기쁘다.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 금정산의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찰 불단·고승 진영 최신 연구조사 '망라'

불교문화유산硏 · 국가유산청
2023년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사찰 불단과 고승 진영 관련 최신 연구조사 결과를 만날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재)불교문화연구소(소장 호암 스님)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공동 추진 중인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와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조사' 사업의 2023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2023년 대구·경북 지역 9개 주요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보물 및 시도유형문화유산 등의 불단과 장엄구 총 35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문학적·보존과학적 조사와 원형 디지털 기록화 및 안전 점검 등의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경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에서 불단 제작연도(1580년)를 확인할 수 있는 묵서 기록을 발견했으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불단 내부에서는 목조불단과 소조대좌가 확인됐고, 외부 불단과 내부 불단 사이에서는 녹유전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불단의 내부에서는 불단을 제작한 장인 등에 대한 기록을 파악할 수 있는 묵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를 통해 제작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묵서가 발견됐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인천·경기, 강원 지역 11개 사찰의 불단 12점과 장엄구 16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지난 5년간의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의 사업성과를 종합한 학술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조사'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추진 중이며,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2023년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 지역 29개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승 진영 총 201점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록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인문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의성 대곡사 삼화상 진영' 등 고승 진영에 대한 현황 및 중요 기록자료 등과 함께 2차원(2D) 디지털 촬영을 통해 확보한 정밀 원형 사진이 담겨있으며, 보존과학 조사를 통해 도출한 향후 보수 및 보존처리의 방향성도 수록했다.

또한, '대구 유가사 도성암 응월당 증일 진영' 등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승 진영 11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서울·경기·강원·전북·부산 지역 19개 사찰에서 소장중인 진영 75점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국·공립 및 사립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진영 109점 등 총 184점에 대해 정밀 학술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신중일 기자

장좌리사지서 고려·조선 건물지 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 6월 11일 현장설명회

완도 장좌리사지에서 고려~조선시대 사찰 건물지들이 확인됐다. 〈사진〉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호암 스님)와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6월 11일 완도 장좌리사지 시굴조사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개최했다.

완도 장좌리사지는 중암사지라고도 불리고 있으나, 관련 문헌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중암사지 팔각부도(향토문화유산 제6호)가 일제강점기 당시 중암사지에서 보길도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어 일찍부터 사찰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돼 왔다.

연구소에 따르면 시굴조사 결과, 건물지와 석축, 담장 등이 중복된 상태로 확인하였으며,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등이 출토됐다. 출토된 유물 중 고려시대 기와문양인 어골문과 격자문이 결합된 복합문이 확인되어 절터는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절터는 석축을 축조하고 건물을 배치하는 산지가람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중심영역과 생활영역이 지형에 맞춰 구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굴조사 기간에 개최된 학술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완도 법화사지와 더불어 완도 불교문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완도 장좌리사지 시굴조사는 완도 법화사지에 이은 완도 불교유적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유적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완도의 새로운 역사적·학술적 자료가 축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만족도 최상" 평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코레일관광개발과 협업해 6월 8일 출시한 당일형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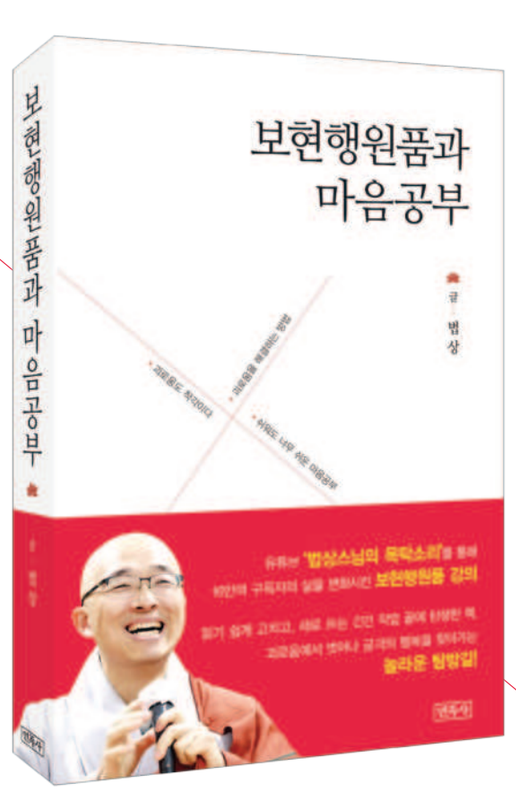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원포인트 여행(특정 테마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부합한 금번 기차여행 상품은 첫 출시임에도, 목표 인원 98%에 이르는 309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반야사, 영국사, 용화사, 갑사, 신안사, 한국문화연수원, 도리사, 직지사 등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각 사찰은 만다라 명상, 108염주 만들기, 깻잎 유기농 쿠키 만들기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불교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펼쳐온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사업이 드디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지역 관광문화와 다각도로 접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행복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법상 스님의 말씀을 통해
저절로 공명하고, 감동하면서 체화될 것이다.



『화엄경』「보현행원품」은 생활 속에서
마음공부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경전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쉽고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매우 깊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토록 쉬운 방식으로
실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법상 스님의 머리말–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 | 글 법상 | 432쪽 | 23,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2~6/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 크신 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3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8	선원일기:화두하나로 죽고 사는 선사들의 수행이야기	지범 지음	사유수
4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 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10	윤회(대원불교학술총서15) 불교의 마음업우주에 대한 길잡이	로저 잭슨	운주사

책세상

승려 과거시험 '승과' 어떻게 운영됐나



조선의 승과연구
정각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7000원

조선시대 승과 양상 전반 고찰
시기별 주관자, 입격자들 정리
묻혀있던 불교사 발굴 의미 커



서울 강남 코엑스에 있는 승과평 표지석. 스님들의 과거시험이었던 승과는 1564년 폐지되며 잊혀진 역사가 됐다. 사진=비짓 강남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과(僧科)'를 굳이 설명하자면 '스님들의 과거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나라에서는 특정 승려를 선출, 그들에게 승직(僧職)을 부여했는데,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 조선에 이른다. 다만 조선시대 승과는 1564년 폐지되면서, 명종 대 승과가 진행되었던 서울 봉은사의 승과평(僧科坪)은 현재 코엑스 구석의 표석으로만 남았고 남양주 봉선사의 승과원(僧科院)은 채마밭으로 변해버렸다.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고양 원각사 주지)이 저술한 〈조선의 승과 연구〉는 역사 속에 묻힌 승과, 특히 조선시대 승과의 양상과 전개에 관해 고찰한다. 또한 옛 문헌을 통하여 조선의 각 시기별 승과 주관자(主管者)와 입격자(入格者)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전기 불교사 연구를 위한 하나의 주요 자료를 정리하려는 목적이다.

저자는 먼저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까지 존재한 승관제(僧官制)에 대해 설명한다. 역사적 전통을 고찰함에 있어 그 시작점을 살피는 일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사찰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기관인 승록사(僧錄司)의 구성과 양태,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조선 초에 행해진 종파(宗派)의 통폐합과 승록사의 혁파 과정을 서술한다. 특히 혁파된 승록사를 대신한 양종도회소(兩宗都會所)의 구성과 역할을 살피는데, 그 역할 중에서 승니(僧尼)의 시재행(試才行)과 도첩 발급, 선시(選試, 승과의 별칭)의 주관, 주지(住持)의 작첩(爵牒) 발급 등의 역할에 주목한다.

3장에서는 조선 초부터 세조 연간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선시의 형식과 이를 통해 수여된 품계(品階)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선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대목이 주목된다.

저자는 시기별로 선시가 혁파되고, 다시금 복원되며, 나아가 기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여기에는 왕족의 친불적 성향이나 조선시대의 커다란 사건 중 하나인 임진왜란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각 시기에 따른 승과의 주관자와 입격자를 파악한다. 조선시대에 승과에 입격한 자들은 당대 문인들과 견줄 수 있던 자들로, 조선시대 불교계의 위상을 대변해 주었던 자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관련 사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조선시대의 승과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고, 승과 입격자들의 현황과 그 활동 또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저자는 조선왕조실록과 문집, 불상 조상기(造成記)와 불화 화기(畵記), 조선시대 간행 불서(佛書)의 간행질(刊行秩)을 통해 이들 각각의 명단을 파악한다. 특히 불서의 간행질에 수록된 다수의 입격자 명단은 조선 전기 불교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승과는 1564년 이래 폐지되면서, 잊혀진 역사가 됐다. 하지만 조계종에서는 승과 전통을 되살려 2001년 이래 승가고시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5급에서 1급까지의 승과고시가 정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천 무비 대종사는 이 책을 "승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종단의 역사적 전통 가운데 하나를 되살린 중요한 업적"이라고 상찬했다.

역사의 한켠에 묻힌 승과 전통을 우리 불교사의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로 다시금 소환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미덕이다.

▲저자 **정각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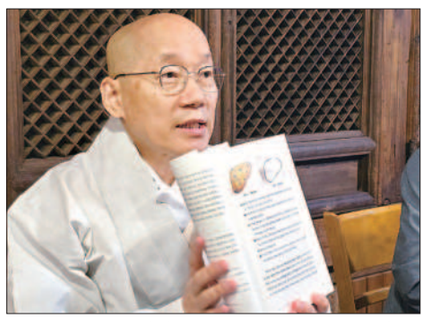
가톨릭대학 신학과 졸업 후 송광사에 출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였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및 미술사학과를 수료,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무비 스님을 법사로 강맥(講脈)을 전수하였으며, 조계종 교수아사리에 위촉됐다.

동국대 · 중앙대 객원교수 및 불교신문 논설위원, 경북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한국 종교인평화회의 종교간대화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교수 및 이화여대 객원교수, 고양 원각사 주지로 있다. 〈불교 부적의 연구〉 등 17권의 책과 '천수다라니에 대한 인도신화학적 고찰' 등 50편의 논문을 저술했다.

제4세대 심리상담방법 '영상관법' 면면 알린다

인경 스님 '명상불교의 정수, 영상관법' 출판기념회

6월29일 韓불교역사문화관서
'영상관법과 마음치유' 주제로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이 6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상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상관법'이라는 새로운 상담방법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명상상담평생교육원은 6월 2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영상관법과 마음치유'이란 주제로 인경 스님 출판기념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이 저술한 〈명상불교의 정수, 영상관법〉 발간에 따른 것이다.

인경 스님의 '영상관법과 마음치유 이론과 실제 개요' 특별강연으로 시작되는 토론회에서는 '영상관법의 이해'에 대해 동국대 교수 정도 스님, 이필원 동국대 교수,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논평을 한다. '영상관법의 심리학적 접근'에 대해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향산 스님·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김창중 전 동양대 교수가 논평을, '영상관법 사용 사례연구'에 대해서는 권주희 명상상담평생교육원 교수·안세윤 건양대 교수·이영순 마인드힐링 명상심리상담센터 원장이 각각 논평한다. 특별강연과 논평이 끝난 후에는 종합평가 및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6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경 스님은 '영상관법'에 대해 "우울과 분노는 각각의 감정을 발생시키는 씨앗이 있다. 이런 씨앗이 우리에게는 이미지로 저장된다"면서 "저장된 이미지를 떠올려서 관찰하고 이를 통찰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정화하는 명상이 '영상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 불교의 특징이 명상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정수는 영상관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현대인이 겪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전략을 제공해준다.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과 우울, 공황, 스트레스 등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을 영상관법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경 스님이 출간하는 〈명상불교의 정수, 영상관법〉에 대해 손강숙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중앙승가대 교수)은 "제4세대 상담방법으로서의 영상관법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를 성장시킨다. 새로운 방식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는 이 책은 명상상담에 대한 이론과 함께 다양한 실제를 소개하고 있다"고 추천했다.

또한,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영상관법은 명상상담의 핵심 기제로써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한다"면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물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가 마음을 반조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살피는 보살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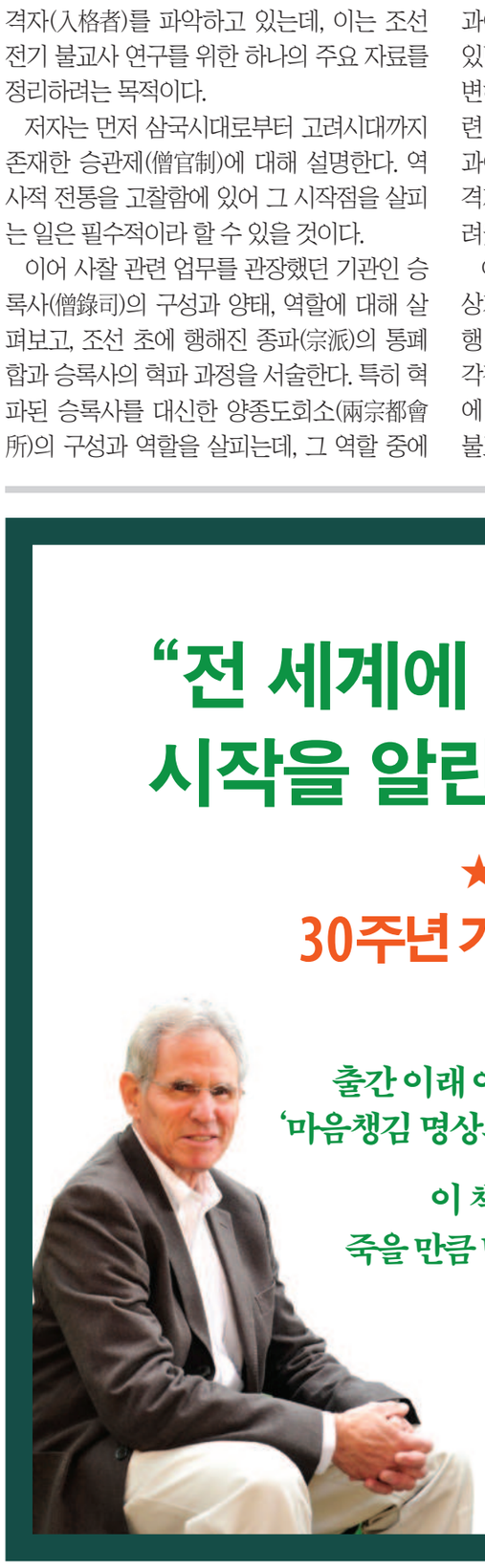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역시 "영상관법과 현대 심리학의 명상 기반 인지행동치료는 공통으로 불교 명상법을 치유의 핵심적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가 초기불교의 명상에 기반한 것이라면, 영상관법은 대승 유식불교의 수행이론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에 따라 개발된 심리치료법"이라고 상찬했다.

신중일 기자

"전 세계에 마음챙김 열풍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책!"

★★★★★

30주년 기념 에디션 출간!



출간 이래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
'마음챙김 명상의 대부' 존 카밧진의 역작!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죽을 만큼 명상이 하고 싶어진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마음챙김 명상 교과서



발간 이후 30년간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명저
❖
전 세계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30th Anniversary Edition
Wherever You Go, There You Are

존 카밧진의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 거기에 당신이 있다

존 카밧진 지음 | 엄성수 옮김 | 364쪽 | 19,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

신금강 풍광에 담긴 깨달음의 선시

〈현재 천성산〉



신금강내원사시선
글 춘담문인 해담 등
도서출판 통도
2만2000원

경봉 선사 천성산 찬시 요청에
통도사 성해 선사와 당대 문인
詩 170여 수 보내와 詩選 묶어
경봉 선사 선양위해 한글 풀이
42주기 추모다례재서 봉정 예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경봉 선사는 삼소굴에 거처하면서 청백가풍을 지키고, 승풍진작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1920년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경봉 선사는 새로운 금강(新金剛, 현 천성산)의 경치를 기술하려다 붓을 던져두고 침묵했다. 그리고 시를 한 수 읊었다.

"산천에 만 가지 기이한 모습 만들어내니/ 천고의 영웅들 진리의 지팡이로 머무르네!/폭포 떨어지는 바위에는 백옥 빛 흩날리고/ 구름 걷힌 하늘 끝에 뭇 봉우리들 드러나네./ 절은 맑은 기운 품어 마음은 선정에 들고 /봄은 매화 향기에 젖으니 학도 소나무에 졸고 있네 /금강산이 어느 곳인가 넌지시 물었더니 /노란 꽃잎 흐르는 물과 달빛 아래 종소리 가리키네."

내원사 주지로 부임한 경봉 선사는 천성산의 절경과 심오함을 담기에는 자신의 문장이 졸렬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했다. 경봉 선사는 신금강이라 불리는 천성산을 보고 소감을 담은 시를 보내줄 것을 통도사 사보인 〈축산보림〉에 담아 부탁했다.

요청에 응답한 전국의 스님들과 당대 문인들은 시를 적어 스님께 보냈고, 시 170여 수를 모아 책 〈소금강 내원사 시선(小金剛 內院寺 詩選)〉으로 묶었다.

책에는 경봉 스님의 자작시와 통도사 중흥조 성해 선사, 구하 스님, 월하 스님, 벽안 스님, 범어사 성월 스님, 송광사 향봉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의 시가 담겼고, 한영렬 양산군수와 전우석, 전용규, 전경호 등 전국 문인, 한학자 이가원, 독립운동가 등 승속을 넘어 수많은 이의 시를 담았다. 또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잘 알려진 위암 장지연 선생의 시도 수록됐다.

이들의 시를 편지로 받아서 옮겨 적거나 구술한 것을 직접 기록하는 등 경봉 선사는 직접 친필 서체로 적어 책을 정리했다. 책은 천성산의 풍광을 신금강이라 부르며 불교 선문화를 주제로 깨달음을 담은 선시를 모은 책이다.

〈소금강 내원사 시선〉은 재가불자 오현주와 구참 월문 선사가 소장하고 있다가 2015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기증해 그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통도사 경봉문도회는 주축이 되어 번역 작업을 시작했고 한문으로 기록된 시선집을 한글 풀이하여 발행했다. 바로 〈신금강내원사시선(新金剛 內院寺 詩選)〉이다. 경봉 선사 열반 41주기를 맞아 스님의 수행과 정신을 선양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와 선인의 발자취를 저장하고 또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다. 한글 번역은 불국사 대학원장 덕민 스님이 감수를 도왔다. 〈신금강내원사시선〉은 7월 2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봉행 될 경봉 스님 열반 42주기 추모다례재에서 봉정하고 배포될 예정이다.

책 〈신금강내원사시선〉은 내원사 및 천성산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종정 성파 대종사의 서문, 불국사 대학원장 덕민 스님, 경봉문도회 문장 원명 스님, 경봉문도회장 원산 스님의 발간사 및 서문이 담겨있다. 아울러 1920년대 〈소금강 내원사 시선〉에 담겼던 통도사 대율사 해담 스님과 강성찬 스님의 서문과 〈축산보림〉 제3호에 경봉 스님이 직접 작성한 글 '양산의 신금강'도 실려있어 이해를 돕는다.

책 번역을 담당했던 반산 스님은 "이번 책 발간을 준비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축산 도량과 신금강으로 일컬었던 영산 천성산은 통도사의 성해문손인 우리들이 반드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최고 최상의 도량임을 알게 되었다"며 "이번 출간을 계기로 구하, 경봉 양대 선사의 유묵과 아울러 천성산 내원사를 신금강산으로 불렀던 옛 정취를 감상하는 좋은 인연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269자 속 '空' 가르침 풀어내다



이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원영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8000원

"아제아제 바라아제 모지사바하"와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는 경구로 잘 알려진 〈반야심경〉은 사찰에서 하루 세 번 올리는 예불(禮佛) 때는 물론이고, 그 밖의 불교식 행사나 의식마다 스님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함께 독송하는 경전이다. 〈금강경〉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불교 경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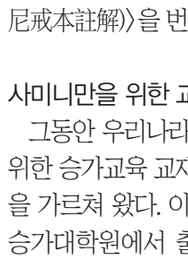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의 명칭처럼 전체 60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반야경(般若經)〉 가운데 핵심을 단 260자로 압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구절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만을 짚어주지만, 수십 번 들여다보아도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을 오롯이 알기는 쉽지 않다.

원영 스님의 저서 〈이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空)'의 가르침에 대해 풀어낸 것이다. '공'이라는 한자의 의미 때문에 더 알쏭달쏭하고 오해하기 쉬웠던 이 가르침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는 '눈높이 설명'으로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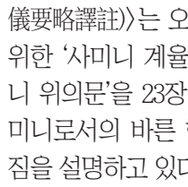
이 책은 원영 스님의 TV강의에서 한 수준 더 들어간 〈반야심경〉 강의다. 〈반야심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각각의 구절에 담긴 가르침에 대해 낱낱이 풀어준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설명이 아닌 일상 속 쉬운 언어와 공감이 가는 다양한 예시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단박에 깨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잡하게 느껴질 만한 개념은 표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나 개념은 별지의 형식으로 담아서 이 책 한 권이면 〈반야심경〉이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중일 기자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 번역불사
사미니·비구니 '율서' 빛을 보다



사미니율의 요략역주
혜안 스님 역주/
조계종출판사/
2만2000원



사분비구니 계본주해
불영 스님 주해 · 청암사승가대학 편역
비매품

사미니, 비구니스님을 위한 율서가 발간됐다.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청나라 말 독체 율사가 지은 〈사미니율의요략〉을 온전히 번역·주해(註解)한 〈사미니율의요략역주(沙彌尼律儀要略譯註)〉와 중국의 불영(佛營, 1912~1970) 스님이 주해한 〈사분비구니계본주해(四分比丘尼戒本註解)〉을 번역·출간했다.

사미니만을 위한 교육 교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미니를 위한 승가교육 교재로 '사미 계율문'을 가르쳐 왔다. 이번에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에서 출간한 독체 율사의 〈사미니율의요략역주(沙彌尼律儀要略譯註)〉는 오롯이 사미니만을 위한 '사미니 계율문' 전문과 '사미니 위의문'을 23장(章)으로 나눠 사미니로서의 바른 행동거지와 몸가짐을 설명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총 상하이문(上下二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편은 십계(十戒)를 설명하는 계율문이고, 하편은 일상의 생활 규범을 설명하는 위의문(威儀門)이다.

계율문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주굉의 '사미 계율문'을 비로소 독체의 '사미니 계율문'으로 바로 잡으며 십계를 설명했다. '위의문'에서는 독체의 '사미니 위의문'에 가사와 발우, 좌복에 관한 항목(衣鉢名相)을 덧붙인 총 23개의 항목으로, 현행하는 '사미니 위의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이 책은 무엇보다 "사미니는 온전히 사미니에 관한 〈계율문〉과 〈율의문〉으로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사미니계경〉의 '계율문' 전문을 싣고 있는 독체 율사의 '사미니 계율문'을 온전히 역주(譯註)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청암사승가대학 교수사 혜안 스님의 역주에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의 전문·연구생들이 많은 시간 토의와 검토과정을 통해 번역·교정·교열·윤문(潤文)을 진행했다.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은 "이번에 출간된 이 역주서를 계기로 사미니들이 온전한 〈사미니계경〉을 토대로 계율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의학적 해석 담긴 율서

〈사분비구니계본주해〉는 요진삼장(姚秦三藏) 불타야사(佛陀耶舍)와 축불염(竺佛念) 공역(共譯)으로 당나라 회소(懷素) 스님이 편집한 것을, 근래에 홍콩 비구니 불영 스님이 주해한 것이다.

해인총림 전 율원장 고천 혜능 스님이 2017년도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 특강 중 연구과정 스님들에게 졸업연구과제로 편역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책의 불사가 시작됐다.

이후 연구생스님들이 전반적인 편집과 번역, 교정과 윤문을 거쳐 1차적인 성과물을 냈으며, 올해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 전문과정·연구과정 스님들의 재검토와 고천 혜능 스님의 면밀한 감수를 거쳐, 비로소 7년 만에 우리말로 소개되는 번역 불사의 결실을 보게 됐다.

불영 스님이 주해한 〈사분비구니계본주해〉 여러 경론을 인용해 계상(戒相)을 상세하게 주석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적인 해석을 추가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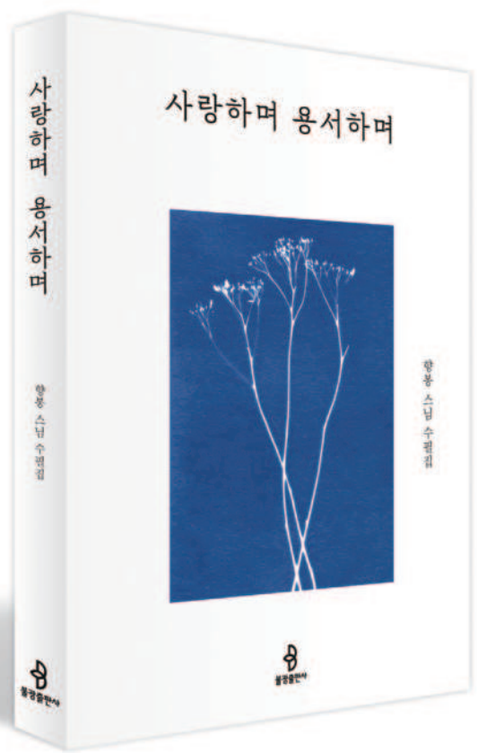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은 "번역서의 출간은 한국 비구니 승가, 특히 한국비구니계단사에 부처님의 계행을 실천할 동량을 키워내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 번역서가 율학을 연찬하고 여일하게 정진하는 모든 비구니 수행자들에게 빛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신중일 기자

『사랑하며 용서하며』는 과연 무엇이 특별한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 향봉 스님의
가슴 시리도록 처절하고 아름다운 진솔함이다!

1979년 초판 출간 이후
60만 독자를 울린 우리 시대의 고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읽은 독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강제 소환한 바로 그 책,
1991년 증보판 이후 33년 만에 복간판으로 재탄생하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향봉 스님 수필집

향봉 지음 | 264쪽 | 17,000원

향봉 스님
익산 미륵산 사자암 주지. 상좌도 공양주도 없이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한다. 어린 시절에 백양사로 출가했고, 해인사 선방을 거쳐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실세'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면에 1973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으로서, 수필집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6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늦은 나이에 철이 들어,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으로 15년의 치열한 구도행을 떠났다. 이후 돌아와 20년째 사자암에 머무르며, 머리와 수염이 허연 미륵산의 한가로운 노승으로서 할 일 없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 2023년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펴내며, 오래도록 그리웠던 스님의 글맛을 절절하게 펼쳐놓았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

지상백고좌

성주 자비선사 주지 원허 지운 스님

“선명상, 생사고락 벗어난 대자유 얻는 길”



원허 지운 스님은… 대강백 운성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이었으며, 성우 스님의 계맥을 이었다. 조계총림 송광사 강주와 팔공총림 동화사 율주를 비롯해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조계종 단일계단 교수사, 기본선원 교선사를 역임했다. 현재, 성주 자비선사 주지와 자비선명상수행센터 수행 지도법사, 승만경연구회 자문위원, (사)한국차명상협회 이사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유월의 신록은 어루만지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연초록빛이다. 자비선사의 우뚝 솟은 일주문은 무심한 듯이 객을 맞이한다. 푸른빛의 대나무는 성긴 바람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무상을 노래하는 듯하다.

명상 수행을 체계화하고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 온 원허 지운 스님의 인터뷰는 성주 자비선사에서 진행됐다. 나붓이 인사를 드리자 스님께서는 먼저 찻잔을 내밀었다.

“올해 직접 만든 햇차인데 몇 잔 마시면 땀도 나는 녹차입니다. 보이차를 마시면 땀이 나잖아요. 이 차는 녹차인데 땀이 나요. 올해 제다법을 다르게 해서 만들어보았어요.” 자비선사 주변에 차나무를 심어서 직접 차를 만든다는 스님은 해마다 차맛이 다르다면서 활짝 웃었다.

지운 스님은 강백 운성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고, 율사 성우 스님으로부터 전계를 받았다. BTN불교TV 및 BBS불교방송에서 〈법화경〉 〈해심밀경〉 〈한글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 경전 강의를 비롯하여 자비다선, 자비수관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여쭈었더니 금요일과 주말은 템플스테이로 하루 종일 일과표가 빡빡하게 짜여 있단다. 자비선사는 자비선 명상 관련해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운 스님이 지도하는 명상 수행에는 자비수관(좌선명상), 자비경선(걷기명상), 자비다선(차명상) 등 모두 ‘선(禪)’에 바탕하고 있다.

“선의 목적이 생사해탈입니다.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대자유, 이게 목적입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것, 선의 목적이 열반입니다. 열반의 다른 이름이 진공묘유, 선에서 말하는 본래면목입니다. 우리는 명상이라고 하면 신비 체험, 힐링, 치유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명상에서 힐링은 기본입니다. 설사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겠구나, 생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옵니다. 그 확신으로 수행을 하다보면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자비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본래 하나라는 뜻이다. 자(慈)는 사랑으로 남에게 베풀어서 나와 남을 함께 기쁘게 한다는 것이며, 비(悲)란 상대방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자비선’은 자비와 지혜를 계발하는 명상이다. 명상을 통하여 마음의 본성은 병과 죽음이 없음을 알게 하고, 명상을 통해서 욕심을 줄이고 욕망의 불을 끄는 방법을 알게 하여 본래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자비심에도 단계가 있는데 법(다르마)을 체험하기 전의 자비는 자신이나 남의 괴로움을 자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마음이다. 상대가 사람이면 사람을 자비로 보고, 또 동물이면 동물을 자비로 대하는 것이다. 이 자비는 생명체가 겪는 괴로움에 대해서 일어나는 자비심이다.

다음은 ‘법연자비’로 법을 통해 보리심을 일깨우는 자비심이다. 법의 눈으로 보면 삶은 연기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조건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으로 본다. 모든 존재 자체가 똑같이 무상한 존재라는 것, 생기면 사라지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화내고 탐욕을 부린다는 것이 불필요함을 알게 된다.

‘명상=힐링’은 본래 목적이 아냐
선명상 목적은 생사해탈에 있어
깨달음 자신감 얻으려면 정진을

자비수관 등 다양한 수행법 창안
‘자비손’ 방편으로 몸, 마음 집중
“존재 그대로의 진실 보라” 강조

그 다음은 무연자비로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모든 존재는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존재임을 알게 된다. 법의 실상을 체험하고 난 뒤의 자비는 자아 그 자체가 없음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해 지운 스님은 “〈범망경〉에도 사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구절이 있다”면서 “유정무정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한한 자비를 일으키는데, 그 바탕이 바로 모든 존재의 본질은 실체가 없이 비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비어 있다 것은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의미”이라고 강조했다.

“자비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이 일어나면 바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바른 깨달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때 보리심의 내용은 내가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염원이지요. 보리심은 말 그대로 깨달은 마음인데 여기에서 자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득 고개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철 늦은 꽃을 피운 철쭉도 자비심을 품고 있는 듯 했다.

지운 스님은 송광사와 동화사에서 강주를 역임했다. 강주로서 보낸 세월이 15년이 넘는다. 적지 않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 물었더니 “당시 교수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저의 강의 방식이 좀 달랐어요. 공부는 묻고 답하는 가운데 실력이 향상되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않아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 산통을 만들어서 뽑기를 하여 당첨되는 스님은 저의 질문에 답하게 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산통을 흔들어서 여러 스님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지요. 학인스님들은 언제 자기한테 질문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거의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어요. 학인스님들이 3개월 정도까지는 대답을 잘 못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원하는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알기만 하고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게 해주는 게 하나의 교육 방법이었지요. 제가 송광사에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법을 사용했어요.”

송광사에서 강주로 있을 당시 80권〈화엄경〉을 하루에 1권씩 공부하여 80일 만에 마쳤다고 한다. 이렇게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수업 때마다 거의 2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효과는 대단했다. 실제, 시간이 흘러 강원을 졸업한 스님들이 찾아와서 “어디 가서 토론할 때 얼굴 붉히지 않고 말을 잘할 수 있으며,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한다. 지운 스님의 교수법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비선사는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커다란 연못이 있어 걷기선 명상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운 스님은 “자비경선에서는 연못, 나무, 바람, 햇빛, 새소리, 물소리, 허공 등 일체의 자연이 경선의 도구가 된다”고 한다.

스님에 따르면 걷기선 명상은 마음공간 넓히기 수행이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이 즐거우면 함께 기뻐하려는 마음, 남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 이렇게 자비희사의 마음을 동서남북 팔방 상하 온 우주로 무한 확장하고 가득 채우기 위해서도 마음의식의 공간을 넓혀야 한단다.

13면에 계속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지상백고좌

성주 자비선사 주지 원허 지운 스님

“초보자는 습관들이기부터, 조급함 내려놓으세요”

12면에 이어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의식이 깨어나게 된다. 의식이 몸 크기만큼 넓어지거나, 주변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고 유지하는 등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유지된다. 마음공간 넓히기 명상은 바로 ‘깸경선’이라고도 한다.

자비선사가 운영하는 여러 명상 수행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지운 스님은 막힘없이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자비수관’은 ‘자비손’이라는 방편을 통해 몸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과 통찰을 이루는 수행이다. 자비수관에서 본다, 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으로 보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다. 이에 스님은 “존재 그대로의 진실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은 자기 밖의,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형상만 볼 수 있을 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보는 관(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감각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꿰뚫어 보고 아는 앎을 뜻합니다. 수행은 여섯 감각기관의 성격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마음 자체의 보는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왜곡을 없애고 있는 그대로 존재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심안’입니다.”

스님은 “심안으로 보게 되면 먼저 업의 장애를 없앨 수 있다”고 설했다. 업의 속성은 움직임이며, 맹목적이며 습관적이라서 자기가 하는 일을 순간순간 알아차리기 어렵다.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본다면 그런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심안으로 보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기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궁극에는 공과 공을 보는 지혜로 법신 즉 지혜의 몸을 이룬다.

자비수관 수행이 스님께서 창안한 수행인지를 물었더니 지운 스님은 웃으며 이 같이 말했다.

“〈화엄경〉에 열 가지 마음의 손에 대해 설하고 있어요. 〈화염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손이 곧 ‘자비심’입니다. 제가 ‘자비손’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자비수관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자비손은 의식을 자비심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의식으로 만든 자비손은 자비심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원허 지운 스님이 불자들에게 경전강의를 하고 있다.



자비선사를 찾은 신도들과 차담을 나누는 지운 스님.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에 대해 묻자 지운 스님은 “삼법인(三法印) 관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답을 내놨다.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삼법인을 관찰하면 몸이란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며, 본래 무아면서 공하여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깨치게 된다는 것이다. 실체 없는 몸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생각이 업이며, 이 업을 없애는 것이 삼법인을 보는 목적이자 수행이다.

“수행은 들어가는 길을 먼저 알고 하는 것이지, 모르고 하면 체험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지요.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행을 시작하면 삼법인을 체득할 수 있어요. 삼법인은 모든 속박의 자물쇠를 풀어버리는 진리의 열쇠이며, 자비손과 정념에 의해 나타나는 깨달음의 현상입니다.”

자비손이 의식으로 만든 상상의 손이듯이 ‘연꽃 찻잔 명상’도 연꽃 찻잔을 시각화해서 상상하는 차명상법이다. 시각화에 대해 질문하자 지운 스님은 〈청정도론〉의 사마타 수행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상상 기법은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수행논서인 〈청정도론〉에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40가지가 나와 있어요. 40가지의 수행이 상상 기법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건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혹은 심상화하는 이 방법은 심리치료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응용합니다. 제가 선명상 방법을 개발한 것은 150가지가 넘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니 다 ‘K-명상’이지요. 사마타나 위빠사나 수행을 현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 한 것입니다.”

“집중하는 힘으로 삼매가 생기고 무상 · 무아 이치 관찰한 지혜로써 번뇌 소멸돼 깨달음 이룰 수 있어”

결국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지혜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지혜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칼과 같이 괴로움의 원인인 무명과 번뇌망상을 단번에 잘라내는 것이다. 지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르침이 바로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지운 스님은 전한다.

“지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문사수(聞思修)라고 하여 법문을 들어서 얻는 지혜, 법을 사유하여 얻는 지혜, 들은 법문과 사유로 얻은 지혜에 의지하여 닦는 지혜가 있어요. 특히 수혜(修慧)는 선정을 의지하여 오온을 분석해 공성을 드러내는 깨어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현상의 부분을 아는 것이므로 변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모든 현상, 모든 것의 공통되는 것을 꿰뚫어 아는 것이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무상한 존재임을 아는 것, 상호의존하기에 변하고 변하므로 독립된 불멸의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상, 연기, 공은 같습니다. 공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사수를 통해 얻은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운 스님은 사무량심(四無量心)인 ‘자비희사(慈悲喜捨)’는 일상에서도 수행에서도 중요한 것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자(慈)’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탐욕과 분노입니다. 사랑과 연민은 모두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므로 사랑은 단절로부터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어 행복을 만들어 내지요. 보시, 베풂은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비(悲)’는 연민인데, 연민심을 키우는 이유는 원망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제거하여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위안을 주면 자기와 남을 원망하고 해치려는 마음이 치유됩니다.

‘희(喜)’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입니다. 자기만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를 버릴 때 자타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이 일어납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자타를 연결시키고 관계 회복과 소통이 일어나도록 하지요. ‘고맙다’라는 말에는 무아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일상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사(捨)’는 평정입니다. 평정은 선정을 일으키며 공성의 평등을 알고 체득하게 하여 과거의 잘못을 없애고 용서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용서합니다’라고 상대를 용서해 주면 마음의 평등과 평정을 유지하는 사무량심이 길러지지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본성이 공성입니다.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고 생멸이 없으므로 미워할 대상은 처음부터 없어요. 다만 생멸하는 번뇌를 미워할 뿐입니다.“

자비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친 지운 스님은 “일상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를 사용하게 되면 공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가정과 일터에서 실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명상 초보자는 먼저 명상 습관 길들이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스님은 충고한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다.

“처음부터 지혜가 있어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힘으로 삼매가 생기고, 삼매를 의지하여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관찰하여 생기는 지혜로써 번뇌가 제거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어요.”

선명상을 하다보면 인생이 바뀌고,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지운 스님의 가르침은 감로수와 같다. 이른 더위에 생긴 갈증이 해소되는 듯했다.

문윤정 / 작가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⑫ 가야산 해인사



▶한줄 요약
어떤 경로이든 경판을 옮긴 이들의 공덕이 더하였기에 고려대장경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고려대장경판 해인사까지 어떻게 옮겼을까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는 의상 스님과 제자들이 세운 화엄십찰 가운데 하나다. 해인사는 의상 스님의 법손인 순응 스님과 이정 스님이 신라 제40대 애장왕 3년(802)에 왕과 왕후의 도움으로 창건하였다.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근처에 있는 산이 가야산이다. 자연스럽게 가야산 해인사도 깨달음을 얻는 도량임을 나타낸다. 해인(海印)은 해인삼매에서 왔다. 해인삼매는 〈화엄경〉에 등장한다. 마치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져 바다가 고요해지면 거기에 만 가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어리석음의 바람이 그치고 번뇌의 파도가 잔잔해지면 마음의 바다[海]에는 도장을 찍듯이[印] 모든 참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바로 해인삼매이자 깨달음의 세계다.

해인사는 삼보사찰 가운데 법보(法寶)사찰이다. 팔만대장경판(고려대장경판)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해인사 장경각에 모신 고려대장경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다. 세계문화유산에는 부동산만 지정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이 아니라 장경각(판전)이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해인사 일주문 앞 큰 돌에는 '세계문화유산 고려대장경판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고려대장경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고려대장경은 뛰어나다. 뛰어난 만큼 풀지 못한 이야기도 여럿 있다. 그중 하나가 고려대장경을 해인사까지 옮긴 여정이다. 완성된 경판은 처음 강화도성 서문 밖의 대장경 판당에 모셨다가 후에 강화의 선원사로 옮겨졌다. 그 후 조선 초기 1938년 서울의 서대문 밖 지천사를 거쳐 해인사로 옮겨졌다.

1236년부터 1251년까지 판각된 대장경판은 약 8만 장에 이른다. 경판의 개당 무게는 대부분 3~3.5kg이며, 4.4kg까지 나가기도 한다. 전체 무게는 250t이 넘는다. 이처럼 엄청난 양과 무게의 경판을 그 옛날 해인사까지 어떻게 옮겼을까? 크게 두 경로로 추정한다. 서울 지천사에서 시작하여 장호원·충주를 지나 조령·문경·점촌·구미를 통과하여 장경나루를 거쳐서 해인사까지 운반하는 경로다. 그런데 조령을 넘는 등 육로가 많아서 힘든 경로다. 또는 서울 한강에서 배에 경판을 싣고 서해로 나와 남해를 돌고, 낙동강을 타고 지금의 고령군 개진면 개포마을에 배를 대고 해인사까지 운반하는 경로다. 개포마을 이름도 '경을 풀었다'는 뜻인 개경포(開經浦)에서 나왔다.



해인사 장경각 고려대장경판.

어떤 경로이든 경판을 옮긴 이들의 공덕이 더하였기에 고려대장경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경판을 머리에 이거나 소달구지에 싣고 운반하는 모습을 그린 벽화를 가끔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공덕을 잊지 않고 따라 기뻐하며 찬탄하고자 경판 이운 행사를 열고 있다.

250t 8만장 경판 서울서 합천까지
옮긴 이들 공덕 더해 오늘날 전해
장경각 속 여러 인연 이야기 가득
신라 때 아픈 공주 위한 불사 설도

가야산 신선이 된 고운 최치원

어떤 경로이든 결국 가야산 홍류동 계곡을 따라 운반하였다. 홍류동 계곡을 지날 때면 드는 생각이다.

'설악산 봉정암에 다녀온 이들이 벅찬 신심을 느끼는 것은 봉정암까지 4~5시간을 걸어 올랐기 때문이리라. 부처님 사리를 모신 사찰은 많은데, 봉정암만큼의 감흥은 일어나지 않는 듯하다. 만약 해인사에 모신 고려대장경을 친견하는 여정도 홍류동 계곡 저 밑에서부터 걸어간다면, 그 감흥은?'

홍류동 계곡을 올라가는 여정이 벌써 극락정토를 거니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마 신라 말 고운 최치원(857~?)이 가야산에서 신선이 되었을 것이다. 옛 글에 의하면, 최치원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 지리산 등지를 돌아다니다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하고, 그가 머물던 집에 신발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그의 흔적만 사라졌다 한다. 그가 입산 후 어떻게 살았는지 생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최치원이 가야산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해인사 곳곳에는 최치원의 흔적이 여러 곳에 있다. 해인사와 관련한 여러 시를 남겼으며, 홍류동 계곡 바위벽에는 최치원의 시가 새겨져 있다. 일주문을 조금 못 미쳐 길상탑이 있다. 1966년에 탑 안에서 탑지 4매 등이 나왔다. 4매의 탑지는 최치원이 작성하였다. 탑지에는 혼란 속에서 도둑들로부터 사찰의 보물을 지키다 희생된 스님들의 영혼을 달래려 탑을 건립하였다는 사실 등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비로운 것은 학사대 최치원의 지팡이 나무다. 학사대(學士臺)는 최치원이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해인사 학소대 최치원 지팡이 나무.

최치원은 말년에 친형인 현준 스님이 있는 해인사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치원은 제자들을 불러 자신이 머물던 암자 앞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으며 말하였다. "내가 살아 있다면 이 지팡이 또한 살아 있을 것이다. 학문에 열중하라." 이 말을 남기고 홍제암 뒤 골짜기로 사라졌다. 그 뒤 거꾸로 꽂힌 지팡이에서 새움이 터서 나무가 자라났다.

물론 그 나무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은 아니다. 〈백불암집〉에 의하면, 그 지팡이 나무 자리에 1757년경에 심은 손자뻘 후계목이 있었다. 그렇게 이어져 오던 전나무는 역사와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관리 되어왔다. 그러나 2019년 태풍 링링 피해로 부러지면서 그 가치를 잃었다. 지금 학사대에는 죽은 전나무 밑동을 좌대로 최치원 동상이 있다. 2022년 10월 21일 제막하였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로 의자를 만들어 참배객이 사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눈 셋 달린 강아지와 경판 불사

장경각에는 고려대장경 이외에도 여러 인연의 경판이 있다. 신라 때 합천 사람 이거인이 대장경 불사를 발원하여 아픈 공주를 위해 경판을 조성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거인은 가난하였으나 성품이 매우 고왔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눈이 셋 달린 강아지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와서 귀여워하며 잘 길렀다. 3년 후 개가 아무 병도 없이 갑자기 죽자 정성껏 장사와 제사를 지냈다. 다음 해 그도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그는 저승에서 눈 셋 달린 왕을 만났다. 왕이 말하였다. "저는 몇 년 전 명부에서 잘못을 저질러 개의 몸으로 지상에 귀양을 갔습니다. 귀양살이 3년 동안 주인어른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갚고자 염라대왕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 알려주었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인연을 지었는가?"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오래도록 전할 수 있는 불경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승에 왔습니다." 염라대왕은 판관에게 명하였다. "저승 명부에서 이거인의 이름을 찾아서 목숨을 10년 더 연장하여 세상에 다시 보내라." 눈 셋 달린 왕은 말하였다. "주인어른, 인간 세상에 돌아가면 '대장경 판각 공덕문'이라는 권선문(불사에 참여하여 복덕을 짓도록 권장하는 글)을 만들어 관청으로 가서 도장을 받고 기다리세요. 제가 인간 세상을 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그는 곧 꿈꾸듯 깨어났다.

그때 궁궐에서는 두 공주가 병으로 앓아누웠다. 백약이 무효였다. 어느 날 두 공주가 말하였다. "대장경 불사하는 자와 인연을 지으면 저희 병이 낫습니다." 임금은 곧 나라 안에 명하였다. 합천 군수는 이거인에게 권선문을 가지고 궁궐로 가게 하였다. 궁궐에 온 그에게 공주가 말하였다. "저는 바로 세 눈을 가진 왕입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왔습니다." 왕은 임금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저는 저승의 삼목구왕(三目狗王)입니다. 이분은 저승에 왔다가 염라대왕으로부터 대장경 불사를 명 받고 다시 이승에 왔습니다. 임금께서는 이 불사에 큰 시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공주들도 무사하고, 나라도 태평하며, 임금께서도 무병장수할 것입니다." 임금이 흔쾌히 응하자 왕은 이거인에게 이별을 고하고 공주 몸에서 떠나갔다. 곧 공주들은 완쾌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금은 대장경 불사에 많은 재물을 보시하고, 좋은 일꾼을 모아 경판을 새기게 하였다. 그 경판을 가야산 해인사에 모셨다.

이거인의 자비와 개의 은혜 보답으로 인한 불연(佛緣)의 결과는 해인사 장경각에 천년을 지나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불교학자〉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88호 | 15 | 전면광고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 부지 : 300평
- 법당 : 60평 • 요사:60평
- 매가 : 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백양산 아래
- 청정도량 최상의 낙동강 뷰
- 토지 48평, 건물 90평
- 지하1층 34평 법당
- 지상1층 22평
- 2층 20평 및 3층 15평 요사채
- 종교시설 운영, 토굴 활용 가능
- 가액 3억 9500만원(협의 가능)

010-9881-7363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북 청도군 소재
- 대구 1시간, 경산 팔공산 갓바위 30분 거리
-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45평
- 비품시설 23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으로 포교 하실 분

010-7942-9015

사찰토지 안내

- 위치 : 충주시 주덕읍 (국도 4차선 접)
- 대지 : 631평
- 금액 : 2억 5천

010-2136-9889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새고개2길 47
- 대지 : 종교부지 265평 (삼천포)
- 법당 : 20평 (동향)
- 요사 : 30평 (남향) 방3개
- 특징 : 50년된 우물, 수도
- 가액 : 3억

010-8868-70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3000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가액 : 2억 (절충 가능)

010-2008-0377

사찰(급)안내

- 위 치 : 부산 연산동
-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 대지 124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 찰 안 내

- 매매가 65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소재
- 종교 부지 적합함
- 관광산업 단지로도 활용도가 높은 토지
- 토지(과수) : 약 2800평 • 대지 : 약 200평
- 2층 건물 1동 : 약 60평
- 매매금액 : 상호 협의하에관심 있으신 분께 영상 보내드립니다. 전화 · 문자 주세요.

010-3119-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5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0억원

010-5421-1536

사 찰 안 내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포항시 남구
- 대지 : 2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2동,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가액 : 보증금 3백만원 월세 20만원 (계약기간 5년이상 해드림)
※권리금 : 1천5백만원
※동시주차 15대 가능
※비구니 스님 원합니다.

010-7788-3320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010-4835-1739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근교 IC에서 3분 거리
- 대지 : 23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 석물다수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오억(5억) 절충가능

010-3540-8431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 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 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 법회 가능
- 시가이하로 7억5천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 건평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7억 5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 1길 33-12
- 대지 : 320평 법당15평 요사40평 별채15평(건물 미등기)
- 난방 : 가스
- 가격 : 1억 내린 2억9천(급매)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원지
- 대지 : 약 530평 건물 3동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저온창고 5평
- 공양간 30평, 방 5개, 화장실 5개 스님 접견실, 주차공간 20대
- 가액 : 3억 3500만원

010-7364-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1억(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88호 | 16 | 전면광고

위 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려는
마음 냈다면
그것이 바로 출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유마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구합니다

60대 비구입니다.
남은여생, 수행 정진할
조용한 암자를 구합니다.

010-5929-3217

밀양 재악산 영산재 학인모집

의식 및 사물. 대금. 태평소

전통의식에 관심있으신분 많은동참바랍니다.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밀양시 초동면 영원사

010-3156-2211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종도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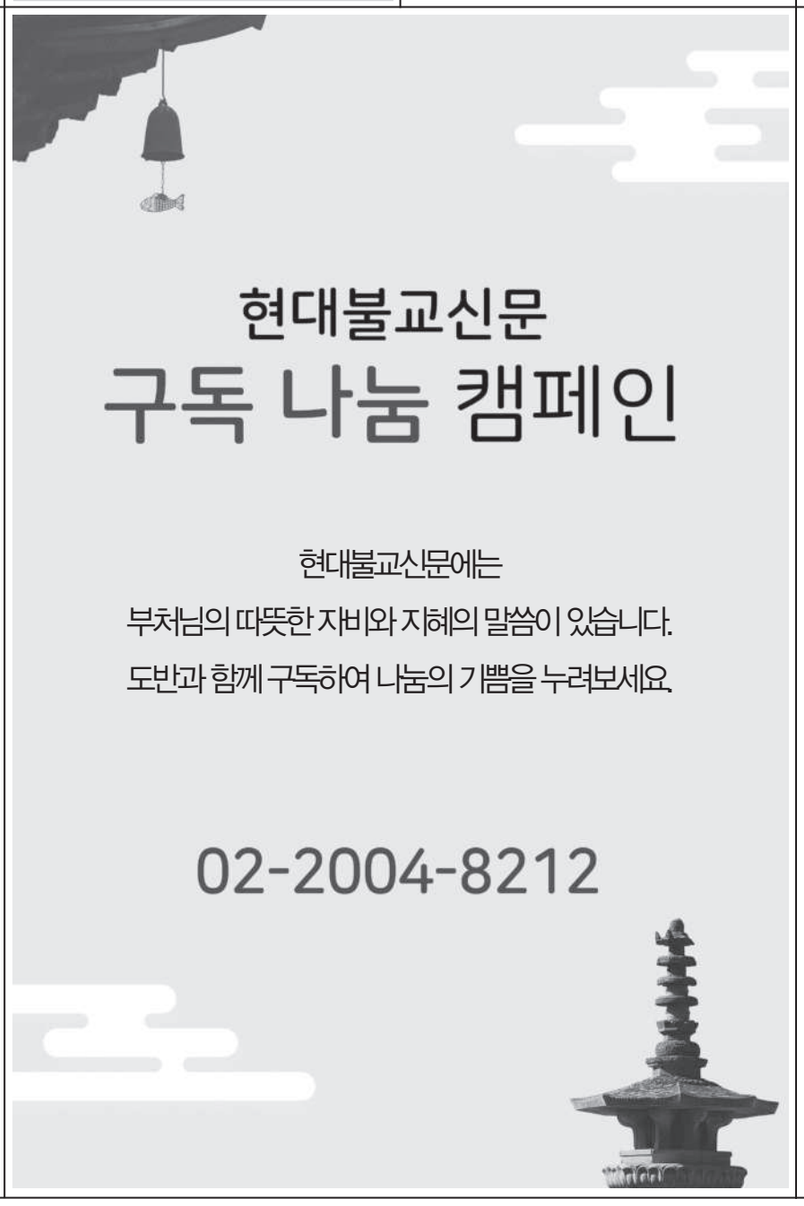
010-4766-6358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에 난무하는 눈탱이!

삭발에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을 보는 일반업자들의 시선들! .... 세상 물정에는 좀 어두운분들이겠거니 하며 눈탱이 염불시설들로 가득채움 눈탱이 : 속은 비어있는 그럴듯한 동남아 부품으로 가득채워 바가지를 쒸우는 시설업자들의 비속어로 스님들은 여기에 거의 속음



눈탱이 시설의 표본

눈탱이 시설의 결점

1. 다루기 복잡하여 고장이 잘남 (A/S 불가)
2. 복잡한 기능으로 소리 기능이 분산되어 저질소리
3. 또한 염불이 힘들면 성대 질병과 스트레스 누적
4. 법당서 본사 견본과 법당 제품과 양손의 마이크로 스님 자신이 성능비교시 장난감 소리차이 확인

■ 본사 제품 : 마이크는 이태리 숍스제품, 디지털앰프 스피커는 MADE IN KOREA 확인

※ 특징 : 앰프 다루기 1초, 남해의 토굴부터 설악 신흥사 설법전까지 2천여 시설동안 단 한곳도 고장이 없었음. 명산대찰의 수천만의 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성능차이(반드시 확인) 가격 기존시설과 $\frac{1}{3}$ 차이 확인, 앰프 스피커 최신디지털

▣ USB겸용 디지털앰프 법당스피커 2개, 법당 밖 스피커 2개,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시설가격 190만원부터~ 무한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시중에 없음



가격 ₩ 89만원



최신 디지털 앰프 USB겸용 유 ·무선겸용 마이크 4개 동시사용
출력 3kw 대형스피커 12개까지 연결가능



염불전용스피커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재생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89만원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뿌리,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⑫ 차 놀이에 대하여

투다, 차를 통한 풍류 보이다

〈鬪茶〉

봄이 오면 차를 기다리는 애호가들은 기대감에 부푼다. 이는 새로 만든 햇차가 주는 맛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서다. 싱그러운 향기와 짜임새 있는 맛, 생기 발발한 차의 기세, 순수한 향, 맑고 시원한 향, 난향의 경쾌함 등은 좋은 차가 함의한 기미의 세계이다. 이는 차의 진수로, 차의 생명성이기 때문에 차를 만들거나 즐기는 이들이 명차의 조건으로 인식한다. 이런 명차를 만들기 위해 차의 산지 여러 곳에서는 곡우절(4월 20일경)이 오기를 기다린다. 곡우는 최적의 차를 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기로, 명차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좋은 차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곡우를 전후하여 차 싹이 돋는 상태, 날씨, 인력 수급 등에 촉각을 세운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명차를 얻으려 하여도 이는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늘과 자연이 내주는 찻잎의 순수한 내면세계를 증기나 화력을 이용하여 갈무리할 뿐이다. 이런 원리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궁극적으로 좋은 차는 하늘이 내는 것이다. 아무리 차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완벽했다고 하더라도 차를 따는 시기에 비가 오거나 예기치 못하게 춥다든지 무더워지는 자연의 조건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제다인은 겸허하고도 순선한 마음으로 좋은 차를 내줄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저 성의를 다해 자연이 길러낸 찻잎이 지닌 풍미를 자연스럽게 갈무리하는 것이 제다인의 마음 자세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로부터 좋은 차는 가인(佳人)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 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로향상을 도모하는 사람은 차를 가까이 하였다. 이런 차의 진수를 최상으로 즐기기 위한 방법은 탕법으로 정의되지만, 삶의 여유에 놀이가 빠질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욕구는 차를 마시며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차 놀이의 향연이다.

이런 사례는 명나라 사람 하수방(1551~1635)의 〈다동(茶董)〉 '탕희(湯戲)'조에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를 내면서 잔 표면에 사물의 형상을 환상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다장(차를 잘 내는 장인)의 신과 통하는 기예이다. 승려 복전은 차 다루기를 잘했는데, 탕을 (다완에) 부어 환상적인 사물의 모양을 완성했다. 시 한 구와 점다한 네 잔의 차는 함께 절구 시 한 수를 다탕(茶湯)의 표면에 드러낸 것이다. 복전의 제자가 날마다 그 문하에 나아가 (그가) 찻잔의 표면에 사물의 형상을 그리는 것을 배우고자 했다. 스스로 완성되자 시를 지어 말하길 찻잔 속에 물로 화려한 그림을 그리니 교묘한 그림, 배워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오히려 지금 육우를 비웃나니 차 다리기로 겨우 명성 얻기만을 좋아했구려.(饋茶而幻出物象於湯面者 茶匠通神之藝也 沙門福全長於茶海 能注湯幻 茶成 將詩一句並點四甌共一絕句 泛乎湯表 檀越日造其門 求觀湯戲 全自詠詩曰生成盞裏水丹青 巧畫工夫學不成 卻笑當年陸鴻漸 煎茶贏得好名聲)



려시대 유행했던 연고백차의 차 거품, 일명 다화라고도 하였다.

차 즐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차 놀이' 부상
송대 사찰서 '투다' 유행… 탕법 우열 가려

윗글은 송대 사찰에서 유행했던 투다(鬪茶)의 규모와 풍모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승단의 풍류, 다시 말해 수행 여가를 차로 구현했던 차 문화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사원차의 풍류는 명전(茗戰), 혹은 투다라고 하였다. 이는 문인에게 영향을 주어 차 문화의 결을 풍성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이런 유형은 고려시대 사찰에서도 영향을 주어 다양한 차 유희를 즐겼을 것이라 짐작된다. 당시 사찰의 차 유희의 유형적 사례는 이연종이 지은 '박치암이 차를 보냈기에 감사를 표하며'라는 시에 "사미승 삼매의 날랜 솜씨로(沙彌自快三昧手) 찻잔 속에 새하얀 차 거품을 쉬지 않고 만드네(雪乳飜甌點不已)"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특히 사미승 삼매의 경쾌한 솜씨는 혹 복전 승려나 그의 제자가 만들어냈던 탕희와 상통하는 것은 아닐까.

원래 탕희는 단차나 연고 백차가 유행하던 시기에 나타난 음다의 유형으로, 사찰에서 유행하여 문인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사원의 수행승 중에는 차의 기예에 출중한 승려도 있었다는 점에서 다장(茶匠), 혹은 신과 통하는 기예라는 용어가 생성되었을 것이다. 이는 수행의 여가를 차를 즐기는 방법으로, 승려들이 주도했던 차의 문희(文戲)요 다희(茶戲), 즉 차 놀이였던 셈이다.

한편 차의 우열을 겨루는 탕사(湯社)라는 놀이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동〉'탕사'조에 소개된 내용에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대 때 노공 화응의 자는 성적이다.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번갈아가며 서로 차를 마셨는데, 차 맛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 이를 탕사라고 불렀다(五代時 魯公和凝 字成績 率同列遞日以茶相飮, 味劣者有罰 號 湯社)

오대는 오대십국 시기로, 당나라가 멸망한 후 907년~979년경을 말한다. 이 무렵 중국의 차 문화는 전역으로 확산되어, 차를 만드는 방법에도 덩이차(餠茶)보다 더욱더 섬세한 공정 과정이 추가되었던 단차의 출현 시기이다. 당시 관료들은 서로 차를 끓여 그 우열을 가리는 놀이가 유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상벌을 정하는 등 차를 통한 놀이의 형태도 매우 세분화되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㉔

1. 다음은 육도윤회(六道輪廻)를 묘사한 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윤회설에 의하면 인간은 꼭 죽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면에서 여섯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볼 수 있다.
때로 하늘의 신들처럼 여유롭고 유쾌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는 갈대인 (㉠)으로서 선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럼 분노에 차 난폭한 행동을 일삼기도 하고, 때로는 (㉢)처럼 우둔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럼 굶주림에 괴로워하며 위축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 중생처럼 쓰라린 고통 속에서 도저히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도 한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	㉡	㉢	㉣
①	인 간	아수라	짐 승	아 귀
②	인 간	천 상	아수라	짐 승
③	인 간	아 귀	보 살	아수라
④	아수라	짐 승	아 귀	인 간
⑤	인 간	아수라	아 귀	짐 승

해설 : 인간은 행복과 고통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입장이며, 아수라는 항상 분노하는 존재이다. 짐승은 인간에 비하여 우둔하며 아귀는 채울 수 없는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존재이다.

2. 부처님께서 사르나트(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들에게 말한 최초의 설법을 초전법륜이라 한다. 다음 중 초전법륜의 내용은?

① 공(空) ② 사성제 ③ 반야사상 ④ 유식사상 ⑤ 정토사상

해설 : 부처님께서는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사성제를 관찰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에 자신이 깨달은 사성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을 생각하셔서 6년 고행을 같이 하다가 떠난 다섯 명의 수행자를 떠올리시고 그들에게 사성제를 설하시려 붓다가야에서 사르나트(녹야원)에 당도하셔서 첫 설법인 초전법륜을 굴리셨다.

3. 삼학(三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공부이다.
② 계학은 악업을 막고 선업을 실천하는 행동규범이다.
③ 정학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삼매에 드는 공부이다.
④ 수학은 목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수하는 공부이다.
⑤ 혜학은 존재와 세계에 대한 바른 통찰이며, 무상과고, 무아의 통찰을 강조한다.

해설 : 삼학이란 계(계율), 정(선정), 혜(지혜)학의 세 가지 배움을 말한다. 수(修)학은 정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목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수'하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4. 열 가지 선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말
② 다툼을 부추기는 이간질
③ 내 것을 남에게 베푸는 행동
④ 생명을 해치지 않고 살리는 행동
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해설 : 열 가지 선업을 십선업(十善業)이라고 한다. 보통의 계율은 악한 행동의 제지와 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면, 십선업은 선한 행동의 적극적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툼을 부추기는 이간질은 선한 업이 아니고, 열 가지 악한 업인 십악업(十惡業)에 속한다. 불자는 십악업을 멀리 여의고 십선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5. 부처님은'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생멸하므로 변화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교설을 지칭하는 불교교리 용어는?

① 제법무아 ② 십이연기 ③ 열반적정 ④ 일체개고 ⑤ 제행무상

해설 :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핵심을 이루는 것은 연기사상이다. 연기란 모든 것(제법)이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가 나고 없어지는(생멸) 연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를 열 두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 십이연기이다. 이 연기법에 의하여 원인과 결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은 '나'라고 할만한 것이 없으며(제법무아),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생멸하여 변화하고(제행무상), 내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고통이며(일체개고), 이 인과가 멈추어 적정해진 것을 열반(열반적정)이라고 한다. ①~⑤의 항목들이 다 연기법과 관련있음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 위 각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숙지하여 풀어야 한다.

정답 : 1. ① 2. ② 3. ④ 4. ⑤ 5. ②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⑪ 능가 스님의 얼갈이콩물김치 국수

▶한줄 요약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해 빈혈에 좋은 제철 얼갈이, 단백질도 영양도 만점인 콩물이 더해졌으니 보양식에 진배없는 먹을거리다. 오늘의 국수는 무엇보다 '오늘의 김치'에서 비롯된 셈이다.



아삭한 얼갈이에 입맛 도는 '마성의 국수'





능가 스님의 얼갈이콩물김치 국수

재료 얼갈이(단배추) 한 단, 과일청(종류 무관), 콩국물(1.5리터), 홍고추 한 줌, 사과 반 개, 생강 한 개, 집간장, 소면

만드는 법
1. 얼갈이는 찬물에 깨끗이 씻은 후, 과일청에 슬슬 버무려 숨을 죽인다.
2. 김치통에 사과와 생강을 잘라 넣고, 얼갈이, 콩국물 순으로 넣어준다.
3. 고추를 갈아 즙을 내어 국물에 섞어준다.
4. 입맛에 따라 간장으로 간을 해준다.
5. 실온에 하루 반나절 정도 익혀준다.
6. 적당히 익은 김치는 냉장 보관하고, 삶은 소면과 함께 차갑게 담아낸다.

감로사를 찾아서

대구 남구 앞산 자락, 담장 밖을 넘어선 나무들이 손을 흔드는 고즈넉한 주택가 골목. 그 길의 끝자락에 감로사가 있다.

감로사의 외양은 보통의 사찰과 달리 현대적인 모습으로 이웃한 건물들과 이물감 없이 어우러진다. 다만 스님들의 가사(袈裟)와 닮은 갈색, 그리고 먹빛으로 조화를 이룬 외벽이 멀리서도 이곳이 감로사임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비록 산중이 아니더라도, 아니 어쩌면 그 반대의 이유로 도심 사찰을 찾는 길은 새롭고 또 설레기 마련이다. 쉬이 혼란해지는 도시의 일상, 그 곁에 잠시나마 마음을 쉴 수 있는 고요하고, 여법한 공간이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기에. 어쩌면 감로사의 시작 또한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감로(甘露)와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

이윽고 도착한 감로사의 입구, 한 걸음 들어서자 일순 편안한 적막이 온몸을 감싼다. 겨우 한 걸음 경계를 넘었을 뿐인데, 승과 속의 세계란 어쩌면 이토록 다른 공기를 지니는 것일까.

수행의 도량에는 '속(俗)'의 영역과는 분명 다른 정결한 힘이 머문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혼의 목을 축이고, 나를 비추어 보며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된다.

단정하게 정돈된 작은 잔디 마당 위로 양껏 쏟아지는 5월의 햇살. 그 위에 풀 먹인 먹빛 승복들이 얌전히 마르고 있었다. 유난히 무덥기로 이름난 이 도시의 한편, 그 속의 작은 샘과 같은 도량 '감로사'의 문을 열었다.

오래된, 하지만 새로운

"오늘 만들 국수는 얼갈이콩물김치 국수입니다."

먼지 한 톨 없이 반지르르 윤이 나던 감로사 공양간, 그곳에서 능가 스님의 환한 웃음과 함께 오늘의 메뉴가 공개됐다. 콩물을 넣은 김치라니, 처음 들어보는 생경한 조합이 궁금증을 일으켰다.

"강원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노스님께서 도반 스님들을 초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게 공양 준비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얼갈이보리김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찰음식 명장이신 선재 스님의 수업을 통해 처음 보고 배운 것이었지요. 그런데 공양을 올리자 노스님들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김치를 어떻게 아느냐고 하시면서요."

청보리가 들판 가득 춤추는 계절이면 먹었다는 옛 맛. 보리를 삶고 으깨어 감자 국물과 함께 자작하게 담은 물김치는 옛 수행자들의 허기진 시절을 달래준 고마운 음식이었다고.

"노스님들께선 정말 조금씩 드시거든요. 송이버섯처럼 귀한 찬도 마다하고, 그 김치만 여러 번 드시던 모습이 무척 기억에 남았습니다."

먹는 일이란 그저 수행의 과정이자 방편으로, 평생 탐식을 멀리해 온 스님들께서 김치 한 그릇에 웃으며 옛 시절을 회상하시던 모습. 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또 '우리 손상좌가 만든 김치'라며 '네가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았느냐'고 기뻐하시던 노스님의 모습 또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오늘의 주재료인 '얼갈이콩물김치'는 바로 이 김치에서 영감을 얻은 것. 옛것에 어느 재료 하나 허투루 쓰지 않는 사찰음식의 유연함이 더해진 새로운 레시피다.

어느 멋진 일

"어느 보살님께서 여름이면 스님들이 땀도 많이 흘리고, 단백질이 부족해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셨나 봐요.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니, 이거라도 드시라고 날마다 콩국을 내려주셨거든요. 하지만 점점 남기는 일이 생기니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김치를 담게 되었어요. 보리도 곡물, 콩도 곡물이니까 어디 한번 담아보자! 하고요(웃음)."

그렇게 탄생한 콩물 김치는 이제 여름이면 빼놓지 않고, 김칫독을 채우는 특별 메뉴가 됐다.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해 빈혈에 좋은 제철 얼갈이, 단백질도 영양도 만점인 콩물이 더해졌으니 보양식에 진배없는 먹을거리다. 오늘의 국수는 무엇보다 '오늘의 김치'에서 비롯된 셈.

콩물을 넣은 탓에 여느 물김치와는 달리 뽀얀 국물. 맛이 궁금해 한 입 들이켜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인다. 매콤하면서도 부드럽고, 깊으면서도 상쾌함이 느껴져 신기할 따름이었다.

말 그대로 식물과 곡물이 어우러져 낼 수 있는 장점이 모두 배어나고 있었다. 물김치에 어우러진 국수를 훌훌 들이켜고, 아삭한 얼갈이를 한 입 먹으면 또다시 입맛이 도는 마성의 국수!

"사찰 음식의 양념 자체는 참 간단합니다. 간장, 소금, 고추장, 된장 이것뿐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발효가 되면 스스로 새콤달콤한 맛, 구수한 맛,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저 작은 장독 안에서 저마다 따로 놀던 것이 서로 어우러져, 이렇게 시원한 물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지는 능가 스님의 한 마디.

"정말 멋진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사람도 쉽게 하지 못하는 걸 해내잖아요."

처음과 다음

"한 공간에서 서로 조화로움을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하지만 그 작은 존재가 해내는 일이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김치 담는 일은 늘 실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발효라는 것이 그래서 신기하고, 그 시간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각기 다른 물성이 어우러져 더 나은 무언가가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 발효의 미덕이 어디 먹을거리에만 국한되는 일일까.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을 나누며 미소 짓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어제의 나날이 발효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안다.

"20대 시절 개인적으로 참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때 누가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불법을 만나 꼬박 4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루어지더군요(웃음). 세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제 마음이 달라지고 비워지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처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좋은 법을 나누어야겠다고요."

그렇게 하나둘 모으고, 찾아낸 수많은 법문과 경전, 전 세계의 다양한 불교 자료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차곡차곡 모은 방대한 자료들 덕분에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스님들도 찾는 거대한 아카이브로 성장했다. 그렇게 법음을 나눈 지 15년,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블로그를 찾았지만 그만큼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제 출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요. 불법을 전하는 것.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비로소 출가하게 되었지요."

새로운 한걸음

낯가림이 심해 입이 안 떨어질 때조차 법문을 나누고 싶어 SNS를 시작했다는 능가 스님.

"좋은 사진과 글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수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글을 남겼더니, 이제는 참 많은 이가 함께 합니다. 그 사이 저도 낯가림을 많이 내려놓게 됐고요. 이제부터 또 제 자리에 맞는 일이 생기겠지요(웃음)."

깊은 방황의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익어가는 시간이 아닌 적이 없다. 작은 단지 속의 푸릇한 생명, 저마다의 재료가 서로를 이해하고, 어우러지는 기적이 매 순간 일어난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그리하여 진실로 간절한 어떤 꿈은 능히,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다.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대행 스님

이것이 틀리다 어쩐다 이런 이론을 붙이면 진짜 공부 못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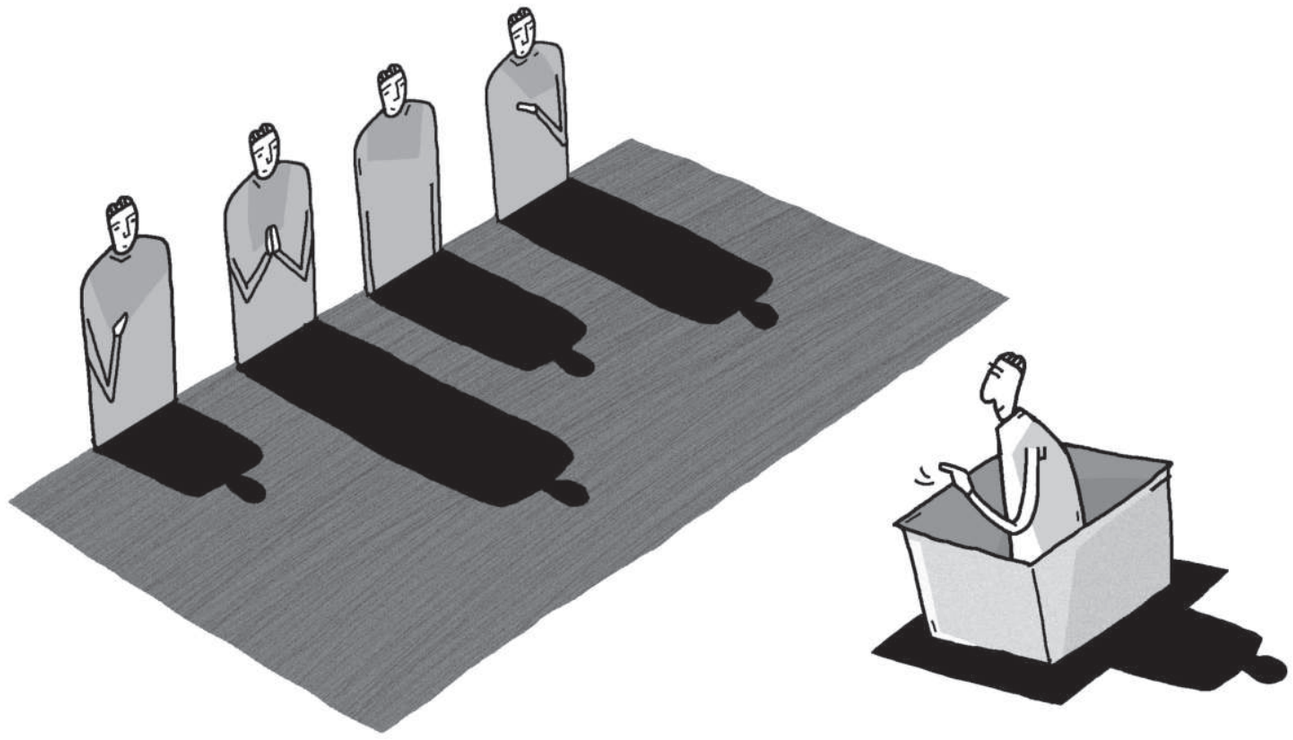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저도 한번 죽어 보고 싶은데

질문 저는 주관이 강해서 남들과 타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절 항상 어려워합니다. 죽어야 나를 본다고 하셨는데 제 갈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저도 살아서 한번 확실하게 죽어 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 내려 주십시오.

답변 여러분은 이래도 한 철 저래도 한 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한 번은. 그러니 이왕 죽을 거라면 아예 죽든 말든 다 그냥 오로지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버리고 버리지 않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냥 공했습니다. 그냥 찰나찰나 우리가 여기 발 디뎌 놓고 떼어 놓는 거와 같아요.

하나하나 없어지고 하나 떼면 하나 없어지고, 이거 보면 이거 없어지고 저거 보면 저거 없어지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없어지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없어지고, 이거 먹으면 저거 없어지고, 이렇게 모두가 죄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거를 왜 붙들고 늘어지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요. 긴 사람을 보면 길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고 짧은 사람을 보면 짧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고 둥근 사람을 보면 둥글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라고 말입니다. 정말 누구 말마따나 접시가 종지라고 우기더라도 "아이, 종지가 맞아요." 이렇게 그냥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고 이론이 그렇게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틀리다 어쩐다 이런 이론을 거기다 붙이면 진짜 공부 못 해요.

여러분은 똥 누러 가는 데도 이유가 붙고 배고파서 밥 먹는 데도 이유가 붙습니까? 주무시는 데도 이유가 붙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졸리니까 그냥 잘 뿐이지, 고렇게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말입니다, 이유가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고, 오고 감이 없이 말입니다. 함이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이유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거나 사는 데 뭐, 저거 하면 거기 이유가 꼭 붙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창살을 넘나들지 못하는 이유죠.

만약에 누가 틀리면 전자에 그렇게 틀렸을 때 내 모습으로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자라는 것도 '아이, 내가 전자에 모자랄 때 모습이로구나!' 하고 마음을 쓰면 공부도 좀 유순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 보면 하나 끄집고 둘 보면 둘 끄집고 이렇게 하니, 아니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찰나에 들어가는 이런 공부인데 그냥 이것 말하고 저것 탓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언제 저승에 들어가서 저승 공부를 하렵니까?

살아서 열반을 못 한다면 죽어서도 열반이 아니 되죠. 경전을 통해서 통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지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성 해탈이라야 그게 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롭고요.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봤는데

질문 부끄럽지만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요즘 자주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되는 일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보러 갔더니 삼재가 들어서 그렇답니다. 괜히 갔다 후회하면서도 자꾸 걸리게 됩니다. 이 모자란 중생이 그래도 마음의 중심 잡고 갈 수 있도록 호되게 꾸짖어 주십시오.

답변 이 공부하는 데는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안 되는 거든지 되는 거든지, 되는 것은 감사하게 놓고, 겸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믿고 놔라. 패기가 없다면 믿는 것이 다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믿는다면 허황된 미신에 불과합니다. 안으로 믿고 안으로 굴릴 수 있고 도도하게 패기를 가지면서 언제나 겉으로는 겸손하게 굴려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마음이 떳떳하다고 해서 나를 세우는 떳떳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사를 가는데 북쪽으로 삼살방이 들어서 계약은 해 놓고 못 갔다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 오는 분들이 그러겠지마는 삼살방으로 가면 집안이 잘 안되니까 죽는다고 누가 그랬답니다. 또 어떤 분은 "삼살방이 들기 이전에 이사를 가면 가환이 떠나질 않는다. 너는 내년에 꼭 죽을 사주팔자고 삼재가 들었으니까 잘못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약했으면 자기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고귀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형성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쭙잖은 말에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로 살지 못하고선 남의 말에 그냥 휘휘휘휘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그건 그런 사람들의 노예지 자신이 사는 참사람이 못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가난을 면치 못하고 우환을 면치 못하고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고 끄달리기에 급급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넓어질 수도 없고 물리가 터질 수도 없죠. 집안은 가난하고 항상 오락가락 융합이 되지 않고 한마음으로 돌아가질 않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친척은 친척대로 돌아가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거는 자기가 지어 놓고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아무거나 팽개치고 마누라 때리는 습관이 있어서 술만 먹었다 하면 자기 세상이야. 또 그뿐인가. 농사를 짓느라고 소를 기르는데 소한테도 그냥 우악해요. 그래서 소도 질색을 하는 거죠. 한번 부렸다만 하면 소 몸뚱이가 뭐 쳐 놓은 거 같아, 멍이 들어서. 아내가 아침에 쇠죽을 쑤어 주면서 보면 그게 가시질 않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런 아픔을 겪기 때문에 소가 그렇게 겪는 걸 보니 소하고 마음이 항상 통하는 거예요. 소더러 하는 소리가 "너나 나나 얼마나 죄가 많기에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맞아야만 할꼬." 이렇게 울어야만 했고 "그렇다고 해서 살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으냐?" 하면서 쇠죽을 쑤어 주면서 같이 운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에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서 바로 남편이 되고, 그 남편은 여자가 돼 버렸어요. 소는 그 집의 아들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횡포를 부렸던 남자는 이제 부인이 됐는데, 아들은 아버지하고는 잘 맞는데 어머니하고는 도대체 맞지 않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은 마음으로 녹일 수밖에 없습니다

☞ 19면에서 계속

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전자에 자기가 그랬다는 거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이면서 자기의 잠재의식에 들어 있던 거기 때문입니다. 자기 잠재의식에 항상 잠재해 있고 그게 아파서 울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질 않고 지워지질 않아서 문제는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진짜 그 도리를 지금 공부하면서 알았다면 그것조차 지워 버릴 것을, 그래서 또 다시 인연을 짓지 말 것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맞아야 하고, 밥 세 끼니 얻어먹는 건 마찬가지건만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때에 따라서는 주정을 받아야 하고 맞아야 하고 애들도 꼼짝 못 하고 이렇게 모두 살아야 하나. 이런 인생은 살아 뭣 하나.' 하고 양잿물을 갖다 놓고 몇 번 죽으려고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잠재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연이 돼 가지곤 거기에 또 뭉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아들은 "아버지, 오늘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둘은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소외당하는 부인은 바깥에서 들으면 그냥 화가 치밀어.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남편이 들어오면 막 그냥 자기를 때리고 그러거든요. 아들도 들어와서는 괜히 투정을 하고 괜히 심통을 부리고 팽개치고 나가고, 그렇게 어머니를 못살게 굴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부인이 하루는 너무 괴로워서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그런 사실 얘기를 좌악 하면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예전에 남편이었고 당신 지금 남편이 당신의 부인이었을 때 몇 곱쟁이 때렸고, 지금 아들인 소를 몇 곱쟁이 때렸어. 그렇게 아프게 때렸고 못 살게 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당신이 이렇게 맞는 거고, 속상하고 불이 일어나고 살 수가 없고 구박을 받는데 아직 백분지 일도 받지를 못했다 이거야. 그러니 저 사람하고 인연이 돼 가지고 세 번을 다시 죽었다 태어나야 다 갚는다는 거라. 이건 정말 너무했죠?

그랬는데 그 소릴 듣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 번 인연을 안 맺고 그 고생을 안 합니까?" 하면서 믿고 기댔습니다, 그 스님한테. "면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안의 자부처를 찾으면서 '모든 것은 내 탓이니 그저 모든 것을 당신께서, 제가 열 번을 죽어도 할 말이 없으니 열 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감수하고 받겠습니다.' 하고선 내 탓으로 돌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름만 달랐다 뿐이지 주인공에 다 맡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들이 그러더라도 맡기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지 말고 한 번 때리걸랑 더 때려 달라는 식으로다가 그저 존경하고 섬겨라. 그런다면 세 번 죽어서 다시 인연이 돼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것이 당대에 없어질 수도 있다. 자꾸 그렇게 해서 네 스스로서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당대뿐만 아니라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답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선 그때서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때려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맞고, 아들이 팽개치고 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염원을 하고, 먹을 걸 갖다 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나가서 사 먹고 들어와도 '그저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 못 가서 아들과 남편이 차츰차츰 착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가 그렇게 때린 업이 녹느라고 그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니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지도 못합니다. 당신네들이 지어 놓은 것들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녹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왜 거길 보느냐 이겁니다. 왜 거길 봅니까? 그거부터 배워야지, 만약에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이건 만날 작은 그릇에 엎드러져서 그 그릇에서 만날 헤어나질 못해요. 그게 습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를 그대로 '보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물건을 생산을 해서 내도록 자비를 가져라 이 소립니다. 물건이 잘못되고 녹이 슬었으면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좀 더 좋게 해서 내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기다 넣으면 언젠가는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거는 이 접시의 쪽이 떨어졌어!" 이럭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쪽이 떨어졌으면 쪽이 안 떨어지게 용광로에 넣어라 이겁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금 쪽이 안 떨어진 것이 나오도록만 용광로에 넣고 말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지금 내가 바빠서 죽겠는데, 지금 다시 자꾸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해내야 될 텐데, 생산하는 거는 나중이라도 자꾸 넣어야 될 텐데, 그러면 스스로 넣게 되면 스스로 용광로에서 새로 또 발견이 되면 '아, 그때는 그렇더니 새로이 이게 나오는구나!' 또 달리 보일 때가 있고 달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물건이 다르니까,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다는 얘깁니다. 고정되게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행을 하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보고 고정되게 말을 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일 년 후에 다르고 몇 달 후에 달라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니 얽히고설켜서 돌아가는 그 인연을 어떻게 끊어야만 하겠습니까? 이거는 물질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써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써 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해라, 기복으로 나가지 말라, 바깥에서 이름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 **여러분은 이래도 한 철 저래도 한 철,**
>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한 번은.**
> **그러니 이왕 죽을 거라면 아예 죽든 말든**
> **다 그냥 오로지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호국 불교에 대한 불자로서의 마음

질문 6월은 호국의 달이라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우리 스님들이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호국 불교의 역사를 이어받아 우리도 그런 마음을 이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우리는 지금 바로 앉아서 세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살림살이, 또 앉아서 호국 불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산 대사나 사명 대사가 그렇게 호국 불교를 가지고 천 명이나 참, 이천 명이나 모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쳤고, 임진왜란 때 그렇게 쳤고 또 그 후에 사명 대사가 일본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참, 그 뭡니까. 저, 태자들을 다 데려왔고 이랬듯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몸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이 돼서 무전도 다니고 모두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무전, 뭐, 컴퓨터, 탐지기, 응? 그 뭡니까, 영사기,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몸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껑충 뛰었다고.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렇게 몸으로 바둥바둥하고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싸우던 이 시절이 벌써 능큼 뛰었단 얘깁니다. 그 후에 소총,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던 때도 벌써 건너뛰었다 이겁니다. 대포나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도 뛰었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앉아서 호국 불교를 안 하면은, 서서는 호국 불교가 할 수 없습니다.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그 도리를 연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삼천 년 전에 가르쳐 오신 그 뜻입니다. 여직껏 삼천 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이렇게 그 공부를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를 앉혀 놓고도 얘길 했고, 길바닥에 앉혀 놓고도 얘길 했고, 둘을 놓고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팔만대장경이 바로 나온 것인데, 우리가 그걸 보고도 그냥 말로만 '아, 부처님 불법은 이렇대, 이렇대.'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화엄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이것이 바로 진짜 불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깨쳐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와 더불어 오신통을 바로 내가 굴릴 수 있어야 하고, 오신통에 그 경(經)도 다 들어갑니다. 오신통을 내가 굴릴 수 있어야지, 내가 오신통에 말린다면 안 됩니다. 그건 도가 아니요, 그건 자유인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들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뭐 조금 보이는 게 있고, 무슨 뭐 들리는 게 좀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아이구! 나는 이거 참 장땡이야!' 이렇게 하실 게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 들어간다면, 그것을 위주하고 그것이 도라고 잘못 알고 들어간다면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귀신의 노예가 돼! 들끓는 귀신의 노예가 된다면 미친 사람이지 그게 성한 사람입니까? 지금도 자기가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노예로서 아파도 어쩔 수가 없고, 속상해도 어쩔 수가 없고, 가난해도 어쩔 수가 없고, 우환이 닥쳐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노예죠! 자유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왜? 옷을 벗게 되면 그냥 있다 '내가 벗게 됐구나' 하면은 벗고 가면 되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삽니까?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진화돼서 창조가 됐으면 다시금 이것을 벗고 다시 마음의 공부를, 즉 말하자면 마음을 깨친다면 이 인간의 모습 이 자체도 억겁을 거치면서 윤회로 끄달리진 않는다 이겁니다. 자유스럽게 사는 거다. 어디고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와. 여기만 혹성이, 이것만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지구만 우리 집이 아니라구요. 전체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도량!

'내 도량' 하면 전체, 우주 전체가 다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땅이요, 내 자리요,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참, 저 산천초목은 저렇게 조화를 이루고 저 물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흘러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가 움죽거리고 이렇게 여여하게 그냥 흘러 도는 것밖엔 없다. 흘러 돌고 이렇게 돌면서 우리는 다양하게 자유스럽게 흘러 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안다면 더불어 같이 이 세상에 모두 살아나가는 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가 이익이 아니냐, 그리고 세세생생에 이익이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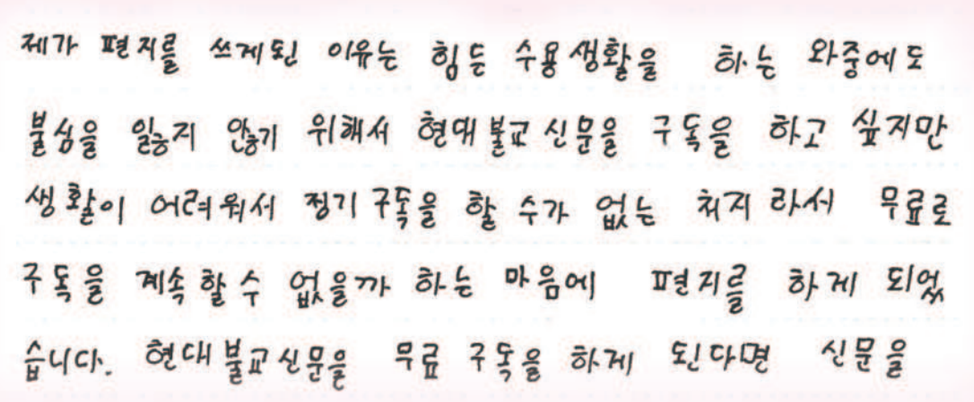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⑫ 내마음 항복 받는 기도

분별 넘어 아상 뿌리 뽑는 정진을

4년째 아침마다 온라인 줌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탑 스님의 〈금강경 법문〉 473쪽에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마음을 항복 받는 것입니다'를 읽으며 경미님(가명)은 "저는 기도를 해본 적이 많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이가 매일 새벽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다길래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었더니,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러고는 낮에 옆집 밭에서 주인 몰래 고추랑 가지를 따오는 모습을 보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고 하니,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무슨 종교이고 믿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답답할 때면 한 번씩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하는 게 저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금강경 법문을 들으니 '기도는 내 마음을 항복받는 거구나. 오직 나무아미타불이 기도구나'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라고 법담을 열어주셨다.

이어서 주연님(가명)이 〈금강경 법문〉 476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계속 다른 이에게 강요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유지하거나, 내게 부족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를 읽으며 느낀 소회를 나눠주셨다.

"어느 날 법회에 갔을 때 '집에서 남편과 싸우고,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회에 와서 앉아 계신 분은 진정으로 법문을 듣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셨던 법문이 생각나요. 실은 어제 저의 마음이 지옥과 같았어요.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 달에 형제들이 저희 집에 올 때 큰동서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큰동서는 맏며느리임에도 여태까지 몇십 년간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2~3년간 요양원에 계실 때도 인사 한번 오지 않았어요. 그런 동서가 저희 집에 온다고 하니, '싫은 사람이 방문했을 때 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여태까지 내가 공부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서 잠도 안 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몸도 완전히 쳐지고 기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를 하면서 '내 고집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지 않아야겠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마음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경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장 율사의 문수보살 친견 이야기가 떠올랐다. 자장 율사는 정암사를 세운 후 이곳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발원하고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자괴감 뿌리는 '나'…겉모습 속지 말고
내 힘으로 안된다는 걸 깨끗하게 인정

그러던 어느 날 늙은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 메고 와서 "자장을 보러 왔노라"고 했다. 시자들이 미친 사람이라며 쫓아내자, 늙은이가 스승에게 알리라 해서 자장 율사에게 알렸더니, 자장 율사도 "미친 사람인가 보다"며 잘 타일러 보내라고 했다. 시자가 밖으로 나가 늙은이를 쫓아내자, "아상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느냐?"하며 삼태기 안에 있는 강아지를 꺼내자 강아지가 사자로 변했고, 늙은이는 사자를 타고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 말을 들은 자장 율사는 문수보살님이 다녀가셨다는 걸 알고 황급히 달려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겉모습에 속아 문수보살을 친견하지 못한 자장 율사의 일화는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이라는 법문을 듣고, 이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보다 더 높은 산을 인아산(人我山)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이 있다면 바로 인아산이다. 부대끼고 있는 '나'라는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결단이 서면, 이제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동서는 없는 것이다. 나다 너다 하는 분별을 뛰어넘어 아상을 뿌리 뽑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진이다.

주연님이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아니었을까?'하는 자괴감도 들었다는 말에, "물론 자괴감이 들 수 있지만, 자괴감의 뿌리도 '나'에요. 이만큼 했다는 내가 있으니 자괴감에도 우리는 속기 쉬워요. 남과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와 씨름하며 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일깨워 주려 일부러 동서의 모습으로 내 앞에 오셨으니,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끗하게 인정하고, 부처님께 다 맡기고 그저 '나무아미타불'하며 진짜 공부를 하자구요. 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계속 간직하고 살다가,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요"하는 말로 법담은 마무리됐다. 나무아미타불!

(금강경법문 공부문의 bowon9@hanmail.net)

〈문사수법회 법사〉



홍재화의 건기삼매경

⑪ KSNS와 무의식 신경(下)

의식·무의식 신경, 상호 작용하고 있다

등 근육, 신경과 연결된 팔을 흔들면서 상체가 비틀리는 힘을 소모시킨다. 팔을 고정하고 걸으면 고정하지 않을 때보다 약 63%의 에너지가 더 소모된다. 팔을 앞뒤로 흔들면 63%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63%의 에너지를 더 사용할 의향이 있어도 왜 빨리 달리지 못할까? 범죄자가 수갑을 찾을 때 쫓아오는 형사에게 도망가기 위해 전력을 다해 질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찬 범죄자는 뒤뚱거리며 빨리 달리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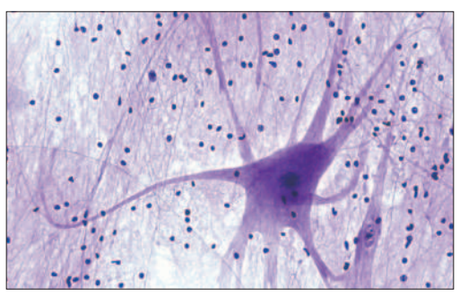
김세연 상트페테르부르크 의과대학 명예교수의 KSNS에 의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먹은 것처럼 달리면 인체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넘어지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의식 신경이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준다고 한다. 다시 수갑을 풀 때 무의식 신경은 다리 근육과 상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브레이크를 풀어준다.

그렇다면 무의식 신경은 왜 자기 몸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진다. 홍성욱은 그의 책 〈포스트휴먼 오디세이〉에서 생명체의 특성 중 하나는 그것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호 작용은 외부에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뤄진다는 의미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그 구성 요소들이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닫힌 네트워크와 비슷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 안에서 상호 작용하는 모든 구성 요소는 생명이라는 자신을 지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식 신경과 무의식 신경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의식 신경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도 마음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무의식 신경의 작용 때문인 것으로 추상할 수 있다. 생명은 입력을 알면 출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신경은 늘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신경 조직은 매우 자주 고장이 나고, 그렇게 되면 근육에 주는 운동 명령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되거나, 명령을 내리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신경 고장의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 즉 수술이나 사고로 신경망이 끊어지거나, 혈관 이상으로 피의 공급량이 줄어들었을 때 자주 생긴다.



사진출처=unsplash

이때 무의식 신경은 근육이 빠른 속도로 반응해야 하는 자극이나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반사작용으로 근육을 움직인다. 반면에 의식 신경은 느리고 큰 힘이 들어가는 일에 작동한다. 의식 신경구조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의학적인 진찰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무의식 신경구조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현대 의학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KSNS의 특징

① 두뇌가 전혀 의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관에 내려지는 신경명령체계이다.

② 척수신경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근육에게 의지보다 강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작은골과 연결돼 무의식으로 기억, 저장된다.

③ 24시간 쉬지 않고 온몸에 작용한다.

④ 통증이 있거나 없더라도 근육의 한 부분이 약해진 것을 찾아내며 그 약해진 것을 대신해 다른 근육에 명령을 내려 임시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보조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

⑤ 몸이 안전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앉았을 때나 서있을 때 무게 중심의 균형을 이뤄서 쓰러지지 않게끔 온몸의 근육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

⑥ 건강한 몸이지만 균형을 잃어버리는 자세가 되면 강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⑦ 무리해 지쳐 있거나 다친 근육을 사용할 때는 더 큰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몸이 스스로 회복되거나 치료될 때까지 활동 범위의 각도와 힘의 크기를 통제하거나 또 사전에 통증을 일으켜서 예방하게 한다.

⑧ 몸이 일을 하거나 걸어갈 때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하도록 명령한다.

⑨ 걸어갈 때 척추와 발 근육이 용수철 작용을 하게 해 지면과 작용, 반작용을 하며 걷는다. 딱딱한 땅을 걸어가면 편하고 푹신한 모래사장을 걸으면 빨리 지치고 피곤하다. 이것은 발의 용수철 작용 때문이다.

⑩ 긴급한 상태가 이뤄질 경우에는 근육에게 일반적 힘의 한계를 넘어서 최대치를 명령한다(불이 나면 평상시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을 뛰어넘게 한다. 긴급 시 또는 재채기, 모래·먼지에 눈꺼풀이 닫히는 경우, 기침하는 경우 등에 작용되는 반사신경도 포함돼 있다).

⑪ 외부의 강한 자극, 몸에 느끼는 통증, 정신적인 자극, 두려움, 슬픔, 놀람, 의식 구조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생각할 수 없도록 무의식 기절 상태로 바꾼다.

⑫ 직접 뇌에서 나온 12가지 뇌신경도 무의식 속에 절대적인 통제와 반사작용을 일으킨다.

〈비바미(Viva!me) 대표〉



전법 일기

신도에 맞춘 관음기도 10년 1명이 28명으로 늘어났다

10여년 전 어느 날 한 분의 거사님이 찾아오셨다. 자기가 관음기도를 하는데, 관음도량인 보리암 등 여러 사찰에서 기도를 해도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거사님은 절을 하면서 관음정근 기도를 하는데, 정근하시는 스님의 정근기도 속도가 어느 곳은 너무 빠르고, 어느 곳은 너무 느려서 힘들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스님들께 " 정근 속도를 좀 조정해 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부탁을 드리면 "거사님이 상이 높아서 그렇다" 며 자신의 정근 속도에 맞추어서 정근기도를 하라고 호통치시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그래서 재적사찰 주지인 필자에게 와서 관음기도를 만들어서 해 주시면 안되겠냐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없던 기도를 만드는 것도 부담이 되고 거사님의 속도에 맞게 정근기도를 하는 것도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거사님의 신심과 열정이 너무 지극하게 느껴져서 거절하지 못하고 관음정근 기도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거사님과 둘이서 거사님이 원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관음정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둘이서 시작한 소소한 기도가 이제는 회원수가 28명이나 되는 거룩하고 장엄한 관음기도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시간이 흘러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때 한 분 거사님의 원력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며, 일주일에 한번 내 마음의 삼독심을 비우고 관세음보살의 원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로 정말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보살은 원력으로 오시고 원력으로 사신다고 한다. 비록 우리들 범부 중생들은 욕망으로 사바세계에 몸을 받고 왔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원력의 보살로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불자의 삶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관음기도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들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위해 기도를 시작 하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로 회향하고,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과 생필품 자비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관음기도의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일이고 참으로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살아있는 생명이건 어떤 것이든 동물이건 식물이건 남김없이 기다랗거나 커다란 것이든 중간이건 짧건 미세하건 거칠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이미 생겨난 것이건 생길 것이건 모든 뭇 삶은 행복하여 지이다."

오늘 하루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으로 가득하시기를 발원하며.



설문 스님
통도사 대전포교원
용수사 주지



송마나의 **시절인연**

흰 고래와 '佛性'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아직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제주도의 바다를 찾았다. 야외 카페에 앉아 바라보는 바다는 아름답고 평온했다. 갑자기 종소리가 댕댕 울리고,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닷가로 달려 나갔다. 고래가 흐릿하게 바다 위로 불쑥 불쑥 머리를 내밀었다. 나도 모르게 바다로 뛰었다.

한 무리 고래 떼가 바다 수면을 가르며 앞선 고래들을 따라 헤엄쳐 갔다. 그들 중 몇 마리가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에 환호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느라 분주했다. 나로부터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에서 아기 고래 두 마리가 번쩍 머리를 들더니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다. 아마도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고래들의 모습은 경쾌하고 발랄했다.

허먼 멜빌(1819~1891)의 〈모비딕〉을 읽으면, 포경선 선장은 자신의 한쪽 다리를 물었던 고래를 리바이던(사악한 짐승)으로 여겨 온 바다를 헤매며 고래의 등에 작살과 창을 던진다. 태평양 최북단에서 잡힌 고래의 몸에서는 그린란드 바다에서 박힌 작살이 발견되곤 했다. 고래가 잡혔을 때 그 몸에는 작살 19개가 꽂혀 있기도 했다. 어떻든 예전에는 뿔뿔이 흩어져 다니는 고래가 이제는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고래가 멸종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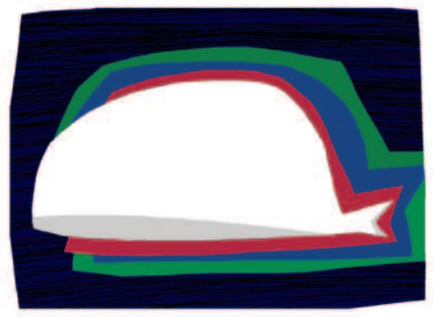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는 물속을 빠르게 헤엄치며 순간 솟구치는 고래의 머리만 언뜻 볼 뿐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하기야 향유고래를 정면에서 응시한다 해도 얼굴은 볼 수 없다고 한다.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없는, 얼굴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이마가 넓은 하늘처럼 펼쳐있는데, 그 이마에서는 본래부터 갖추어진 신적 위엄이 느껴진다고 한다.

모세가 유대교의 신에게 얼굴을 보여 달라 하자 신은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고래에게는 아예 얼굴이 없다는 것이다. 신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는 신이 없다는 뜻일까.

멜빌은 모비딕의 특징이 흰색에 있다고 한다. 내 눈에도 내리쬐는 햇빛으로 반짝거리는 윤슬 속을 헤엄치는 고래들이 흰색으로 보였다.

우리는 옛 조상들이 즐겨 입었던 흰옷에서 애잔한 순결함을 떠올린다. 세속의 오탁에서 벗어난 신성함과 권능도 떠올린다. 신화에서 신들은 흰옷을 걸치고, 성경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은 흰옷을 입는다. 하지만 흰색이 갖는 숭고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공포도 불러일으킨다. 시신에 감도는 차가운 대리석과 같은 섬뜩함이 떠오르고, 신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벌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한다. 배내옷과 수의가 흰색인 것을 통하여 그 색이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어져 있는 색이란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흰색은 무궁한 의미를 담고 있다.

흰빛은 우리의 망막에서 원추세포가 감지하는 빨강, 파랑, 초록의 가시광선들이 합쳐지면 볼 수 있다. 하지만 흰색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흰빛을 통하여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흰색을 배제시켜야만 모든 사물이 드러난다. 흰색은 무(無)색이지만 색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텅 빔(無)에서 만물(有)이 나오고, 만물은 무(無)로 돌아간다. 흰빛은 의미로 가득 차 있는 말 못 할 공허.

나는 윤슬로 반짝거리는 바다에서 뛰어오르는 흰 고래를 바라보며 삼라만상에 가득 차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성(佛性)'을 떠올린다. 〈작가〉

기자칼럼

천재지변에 불교유산 관리 만전을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일부 지역 사찰들이 피해를 입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6월 12일까지 국가지정유산 3건, 시도지정유산 3건 등 6건의 국가유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불교문화유산에 피해가 집중됐다. 부안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좌상(시도유형)은 불두 좌측 장식이 탈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보물)에서 전면 양토가 탈락됐다.

지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은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녹색연합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24곳에 산사태가 발생,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산사태의 이유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5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는 440건에 달한다. 특히 2020년 이후 발생한 피해가 30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목조문화유산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는 흰개미의 역습은 어떤가. 이 역시 한반도 전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흰개미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주요한 이유다. 실제 목조문화유산에 피해를 주는 흰개미 피해가 최근 10년간 23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 기후변화 피해 데이터 정보체계·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의 과학적 분석·예측·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불교계에서는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유산은 소실되면 다시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내 살리려고 집까지 팔았지만
커지는 병원비에 '한숨'

네팔 이주민 무큰다씨, 뇌종양 아내 치료비 2억원
5년 이상 장기치료 필요…재발가능성 여전히 높아
빚만 4천만원, 통원치료비 300만원 감당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소나기 닥칠 지라도 뛰지 말라

현불논단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비록 손을 움직이거나 발을 내밀 때에도 말하기 어려운 무게(三千威儀)와 하나라도 버리기 어려운 사랑스런 손길(八萬細行)이 깃들어 있어야 수행자라고 여러 선지식은 예서부터 이제까지 말씀하셨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꽤나 중요해서 일찌감치 부처님 때부터 쓰였던 훈계용 가르침이자 청규(淸規)였다.

부처님보다도 먼저 열반에 들어 가슴 저미게 했던 지혜제일 제자 사리뿟따를 부처님께 이끈 것은 부처님의 장광설(長廣舌)이었을까? 뒷날을 위해 윤회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고 가르치신 이것이 뭐다냐(이뭣꼬)이었을까? 그것은 아주 뒤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고 낱낱이 쪼개서 한 꼬투리의 의심덩어리도 생겨나지 않게 제대로 보게(vipassana)하는 슬기 가르침, 말씀(話頭)이었을까? 재미있게도 아니다. 오로지 잡티 없이 고요한 걸음걸이였다.

아침 일찍 '기운 옷(袈裟)'를 걸치고 '밥빌음(托鉢)'하러 가는 "앗싸지 비구가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바라보거나 돌아보거나 굽히거나 펴거나 눈을 아래로 내려 보며 단정한 위의를 갖춘 모습이었다"고 우빨리는 율장(律藏)에서 전한다.

앗싸지는 자신에게 밀어닥칠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 왕성을 나가버린 싯다르타를 다시 왕궁으로 되돌리기 위해 특별히 파견되었다가 오히려 붙잡힌 다섯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깨달음도 빨리 얻은 사람이 아니다. 알다시피 가장 먼저 깨친 이는 콘단야(교진여)다. 그런데도 그의 고요한 걸음걸이에 삼천위의 팔만세행이 깃들어 있었기에 사리뿟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사리뿟따 佛門 이끈 건 앗싸지의 걸음
삼천위의·팔만세행 깃든 몸가짐 상기를

그의 고요한 걸음걸이는 깨달음을 얻은 이의 상징으로 보이는 무엇이 있었다. 그 모습을 뒷날 스승들은 수행자는 소나기 앞에서도 뛰박질 하지 않음이라고 하였다. 정말 그럴까? 그 뒤에는 또 요즈음은 어떨까? 어떻게 하면 그런 흠뻑 젖은 생쥐 꼴이 되거나 남의 집 처마 끝에서 비 맞고 중얼대는 상황이 될 텐데도 뛰지 말아야 할까? 사실은 그때 수행자인 비구 또는 승려는 뛸 수가 없었다. 여러 까닭이 있으나 크게 세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다.

하나는 비구의 옷인 가사가 천 하나를 둘러서 밖으로 맨살이 드러나지 않게 입느라 다리를 크게 벌릴 수가 없게 옷매무새를 만져서 그렇다. 남방 비구승들은 그래서 소피도 앉아서 해결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공양을 위해 아침마다 탁발을 하는데 그 발우가 크고 무거워서다. 요즘은 바뀌었다지만 처음에는 돌 발우를 썼다고도 한다. 띠처럼 천으로 묶어서 목에 걸고 다녀야 안전하게 탁발하고 반찬까지 오른손으로 비벼서 먹기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걸어도 앞을 살피지 못해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

세 번째는 앗싸지처럼 붓다와 그 제자들이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소나기를 맞더라도 수행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이유로 품위를 해치면 되겠는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비단 뛰는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발 딛고 사는 지구란 어떤 곳일까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라는 섬에는 주민이 200여 명 남짓인데 사슴이 1000여 마리나 살고 있다. 여기까지 읽으며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풍경이 떠올랐을까? 사슴이 한가롭게 뛰놀며 풀을 뜯는 장면? 주민들이 농사짓는 밭 주변으로 울타리를 세웠으나 사슴이 농작물을 뜯어 먹어 밭은 망가지고 나무껍질을 벗겨 먹으니 나무가 온전히 자랄 수가 없다.

도대체 어쩌다 이토록 많은 사슴이 그것도 섬에 살게 된 걸까? 한때 축산업자가 섬으로 10여 마리를 데려온 뒤 방치하면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천적이 없는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도 일조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일이 떠오른다. 1880년대 목축을 시작하면서 가축을 잡아먹는 늑대를 소탕하기 시작해서 1926년에 이르자 옐로스톤 지역에서 늑대무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마음 놓고 가축을 기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늑대가 사라진 자리에 초식동물인 엘크 수가 급증하면서 나무껍질을 벗기는 정도를 넘어 새순이며 묘목까지 모조리 먹어 치웠다.

생태계의 균형이 심각하게 깨졌다는 걸 인지하면서 늑대를 공원으로 데려왔다. 늑대가 다시 등장했으니 이제 균형 잡힌 생태계가 작동했을까? 옐로스톤 너른 지역에서 엘크는 늑대를 피해 계속 생존할 수 있었고 늑대가 없던 시간 동안 옐로스톤의 생태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전남 안마도엔 1000여 사슴 서식
축산업자 방치 후 기하급수 늘어
관계성 무지가 환경 파괴 이끈다

지난 겨울 강변에서 그물이 쳐진 듯 흉물스러운 구조물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말라버린 '가시박'이었을 확률이 높다. 가시박은 고온다습한 여름이면 하루에 30cm 이상 자랄 정도로 왕성한 성장력을 지닌 데다 한 뿌리에서 2만5000여 개 씨앗을 생산하는 식물이다. 게다가 강력한 화학물질을 배출해서 주위 식물의 성장을 막는 타감작용까지 가능한 게 가시박이다. 그러니 빠르게 퍼지면서 주위 식물을 뒤덮고 가시박에 포위된 식물은 결국 고사한다.

그렇다면 이토록 주변 생태계에 폭력적인 가시박은 왜 퍼지게 되었을까? 1980년대 후반, 오이와 호박을 접붙일 때 필요한 대목 작물로 가시박이 도입되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빨리 자라는 등 상품성이 뛰어난 작물을 만드는데 가시박 줄기를 활용했다. 2000년 이후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고 불어난 강물을 타고 가시박 씨앗이 하천과 습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오늘날 이런 비극이 펼쳐지게 됐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낯선 땅으로 데려올 때는 인간의 크고 작은 욕망이 작동한다. 그렇게 시작했다가 결국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되고 나면 박멸하느라 또 난리다. 비단 생물뿐만이 아니다. 플라스틱은 한때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까지 받던 물질이었다가 이젠 인류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란 무엇인가? 흙인가? 대양인가? 동식물인가? 인간인가? 지구의 모든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가 바로 지구 아닌가? 그런 관계성에 대한 무지가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무한 반복시키며 우리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있다. 모든 고(苦)의 근원이 무지라는 붓다의 가르침이 절절하게 와 닿는 21세기다.

社 說

사지 출토 성보는 예경의 대상

조계종 사찰 소유 토지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조계종 중앙종회 사찰매장문화재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6월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들은 관련 법 미비로 국가로 성보가 귀속되는 현행법의 현황을 바로잡고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소유권 여부를 심사한 후 소유권이 결정된다. 해당 지자체에서 발견 사실을 90일간 공고한 후 원소유자가 나타나면 절차에 따라 돌려주고 소유권 주장이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된다.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발굴된 유물의 소유자가 사찰임이 명백함에도 소유권 판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에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모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매장문화재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2023년에는 탑, 부도, 전각 등 건조물에서 발견된 성보에 대하여 사찰의 당연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건조물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전통사찰 보존지 등에서 발굴된 유물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불상 등 성보는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예경의 대상이다. 불교계 역시 사찰 복원 불사 등을 통해 사지 출토 성보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위의 활동이 이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출범 환영한다

동국대 학생 신행연합조직인 '불교학생연합'이 출범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불교학생연합' 출범 계획안은 6월 12일 동국대 건학위원회 주최 제25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에서 발표됐다.

'불교학생연합'은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불'과 창립을 완료한 14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유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신행연합조직으로 단일 대학에서는 최대 규모의 '학생신행연합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들 학생연합은 오는 9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불교문화축전'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에 15개 단과대학·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를, WISE 캠퍼스에는 6개 불교동아리를, LA캠퍼스에도 1개의 불교동아리를 창립시켰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불교동아리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동아리 지원 계획을 들어보면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동국대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적지 않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고, 이는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님을 보면 학생들이 합장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소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같은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6월 26일 출범하는 불교학생연합이 항구적인 대학생 전법·신행을 이끄는 단체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6월 1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6월 1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6월 1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전체는 하나로, 하나는 전체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공체,
전체가 연결되는 한 뿌리

한마음선원 본원 법형제회 수련회 성료

2024년 6월 8일~9일 장소 | 블룸비스타








"여러분께서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행선사 법형제법회 중에서

